

北核 선제 타격할武力 갖춰야 한다

본회 '휴전 60주, 북핵위협과 남·북관계 전망' 대토론회

휴전 60주년과 북한의 계속된 핵전쟁 위협에 직면해 대한언론인회가 긴급 주최한 '휴전 60주년, 북한의 핵전쟁 위협과 남·북관계전망' 대토론회가 3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대한언론인회 회원 170여명을 비롯한 외부 학자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 개막식에서 대한언론인회 후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은 3차 핵실험과 일방적 휴전협정 파기 선언에 이어 연일 강도 높은 대남 위협으로 지금 한반도는 아주 급박한 안보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휴전 60주년을 기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비태세 등 당면한 안보상황을 재점검해 보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토론회에선 북한의 계속된 핵전쟁 위협으로 남·북관계가 최고조의 긴장관계로 치닫고 있음을 경계하고 이에 한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력제재 능력을 갖추는 것과 대북 방송 재개, 인권문제 제기 등 단호한 대북 대응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문명호 대한언론인회 주필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가능성이 휴전 이후 어느때보다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 하다면 남·북관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군사적 도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해이된 안보경각심을 촉구했다.

이어 주제 발표를 한 이상우 박사 (신아시아연구소 소장·전 한림대 총장)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해 핵전쟁 위협을 더 해 가고 있는데 대해 첫째 핵보유국이라는 동등한 지위에서 미국과 협상을 벌여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 받기 위한 것, 둘째 핵무장으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 핵을 가지지 않은 한국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한국 국민을 불모로 해 경제원조를 강요하거나 한국정부가 유연한 대북정책을 취하도록 강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박사는 북한은 국가간 약속을 지키는 "정상국가"가 아니다"고 지적하고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으로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



170여명의 회우가 참석, 열기로 가득찬 토론회장. (원내는 인사말 하는 본회 후원기회장)

대북방송재개·전단살포·인권 제기 필요 남북정치투쟁 언론이 큰 역할 담당 해야

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핵관련 시설과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 선제적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무력제재 능력을 갖추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일단 무력제재 능력을 갖춘 다음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박사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구축과 핵무기 시설 및 지휘체제를 분쇄할 수 있는 KILL-CHAIN 구축을 역설했다. 그러나 비핵화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대응으로 이박사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체

제 구축과 국제적 협력 강화를 들었으며 세 번째 대응으로 북핵 문제는 통일정책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끝으로 북한 핵은 한국 전복을 위한 북한의 정치투쟁을 뒷받침 하기 위한 '지원 무기'인 만큼 한국 국민도 이에 정치적 투쟁으로 맞서야 하며 언론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에 나선 안인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최대 목표는 북·미관계 개선이며 여기에서 제기될 평화협정 문제에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한국이 6자회담의 작은 성과에 취해

왔을 수석 대표 교체 등 북핵 문제 해결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하고 북한 주민들이 현 상황을 제대로 알고 북 정권과 주민을 분리되게 하기 위해선 대북 심리전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준호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리도 핵원료 재처리와 농축능력을 갖춰 평화적 핵주권을 확보해야 하며 한편 대북 방송 재개,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인권문제 제기 등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정일화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휴전협정 과정을 통해 한국은 남·북문제에 정치회담 무력화,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 한국군 증강과 현대화 등 '적극적 행위자 역할'로 지난 60년간 북한의 끊임없는 협박과 무력침투를 막아내고 세계 10대 경제 발전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 이도형 '한국논단' 발행인은 북한이 주장하는 북·미 평화협정은 곧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의 무효화 그리고 적화통일로 이어지는 만큼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며 제재형 대한언론인회 고문

은 방승등 한국 언론이 북한 선전매체의 김정은 동정과 선전선동 등 북한내부 보도 내용을 그대로 중계하듯 보도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언론의 북한관계 보도행태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본문]

정리 : 정일화 편집위원

사진 : 이철영 편집위원

협상통한 北核포기 이뤄질 수 없다

‘본회 ‘휴전 60주, 북핵위협과 남·북관계 전망’ 대토론회 주제 발표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이유

북한이 국제사회의 점증하는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핵보유국이라는 동등한 지위에서 미국과 협상을 벌여 한반도에서 남한 아닌 북한이 주도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받기 위함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미국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가 핵무기의 확산을 막는 일이다. 만일 북한이 새로 핵보유국으로 등장하면 미국이 공들여 왔던 핵비확산조약체제(NPT)가 붕괴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은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방치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기회를 이용하여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안전 보장을 확보 받고 나아가서 핵비확산 약속의 대가로 ‘마살 원조’와 같은 경제 원조를 얻어 경제적 난국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압도적 군사우위를 가진 북한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주도국임을 인정받으려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국가 존망의 조건으로 삼고 있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한국과의 대결에서 결정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 경제적 파탄으로 경제 대국이 된 한국과 재래식 군비 경쟁을 할 수 없는 북한으로서는 핵무장으로 일거에 대남 군사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은 핵을 가지지 않은 한국에 대하여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한국 국민을 볼모로 해서 경제 원조를 강요할 수도 있고 한국 정부가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취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게 된다. 남북 관계를 북한이 주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수단이 핵무기 보유다.

북한은 대남 정치전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북한은 민주화된 한국 사회 내에서 정치전을 펼쳐 한국에 친북 내지는 중북 정권을 창출하는 것을 대남전략의 중핵적 과제로 삼고 있다. 남북간 갈등은 국제 갈등(International Conflict)이 아니고 민족 내부 갈등(Intranational Conflict)이다. 이념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하나의 민족이어서 한국민 중에서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인구를 과반수 확보하면 정치적으로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있다. 북한은 한국 내의 친북 조직을 앞세워 이미 치열하게 정치전을 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치전에 북한의 핵무기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다.

제재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

북한은 국제연합 결의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무서울 것이 없다. 경제제재도 중국이 ‘뒷

문’을 열어주는 한 북한에게는 큰 아픔을 주지 않는다.

북한은 미국이 전쟁을 무릅쓰고 북한에 무력제재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어 굳이 전쟁까지 벌여 북한 핵을 제거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통하여 핵을 확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 미국의 제재는 풀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중국에게는 동맹국인 북한의 안전이 1차적 관심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포기를 강요하지 않으리라고 북한은 믿고 있다.

한국의 대응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다. 정상국가라고 하면 국가간 약속을 지키는 나라,



이상우

·신 아시아 연구소 소장
·전 한림대 총장

략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우리는 적 미사일 공격을 막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와 같은 방어체제도 구축해야 하지만 북한의 지휘체제와 의사결정 책임자를 직접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관련 시설과 지휘체제를 아울러 분쇄할 수 있는 Kill-Chain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비핵 원칙을 지켜야 한다.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도 있지만 북한의 주민은 우리가 살려 내야 할 동포이지 살상해도 좋

非核무기로 북한제압 수단 갖춰야 친북정권 창출 봉쇄 국민단합 절실

자기 행위나 말에 대하여 책임지는 나라, 그리고 자국 국민의 안위를 통치자의 개인 이익보다 더 중시하는 나라를 말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다른 나라와 합의한 것을 거의 모두 지키지 않았다. 한국과는 100개가 넘는 합의를 했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정부간의 조약으로 최고인민회의의 비준동의까지 받은 1992년 12월의 ‘남북기본합의서’도 지키지 않았으며 같은 해 합의했던 ‘남북 비핵화공동선언’도 어겼다. 최근에는 미국과 합의한 2012년 2월 29일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동결에 관한 합의도 지키지 않았다. 6자회담도 일방적으로 소멸을 선언했다. 북한은 일반 국제법 원칙도 무시하고 국제연합의 결의안도 거부했다. 북한은 자국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제제재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아사자가 속출해도 외면한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대응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본다.

1) 군사적 대응

북한과 같은 상대와의 협상은 반드시 무력제재 능력을 갖추고 시작해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관련 시설과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력제재 능력을 갖추어야 가능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사용하기 전에 모두 파괴당한다고 확신하면 핵개발은 소용없는 위협이 된다는 것을 북

한이 알게 된다.

방어(Defense)는 적이 침략을 개시한 후 적의 공격 능력을 분쇄하여 침략을 저지하는 군사적 수단이다. 억제(Deterrence)는 적이 침략을 준비할 때 적 지휘부의 침략 의지를 분쇄하여 침

략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우리는 적 미사일 공격을 막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와 같은 방어체제도 구축해야 하지만 북한의 지휘체제와 의사결정 책임자를 직접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관련 시설과 지휘체제를 아울러 분쇄할 수 있는 Kill-Chain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비핵 원칙을 지켜야 한다.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도 있지만 북한의 주민은 우리가 살려 내야 할 동포이지 살상해도 좋

련된 한국의 문제이다. 한국이 주도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국제사회와 동맹국인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 담당을 회피하여 왔다.

미국에게는 북한 핵문제는 대외정책 과제의 하나일 뿐이다. 한국처럼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국가 존망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북한의 핵무기는 발사 후라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핵전력을 고려할 때 북한은 자살을 각오하지 않고는 미국에 핵공격을 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보다 핵확산 방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사실을 이용하여 핵비확산 약속으로 미국이 북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도록 흥정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사태 진전에 따라 북한의 핵비확산 약속을 받고 핵보유를 용인할 수도 있다. 아무튼 미국은 북한 핵제거를 위하여 군사적 제재와 같은 강력한 정책 수단을 쓰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미국에게 북한 핵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맡겨도 되겠는가. 한국은 북한과 접촉하고 있어 북한 핵공격에 직접 노출되어 있다. 이렇듯 미국과 한국의 위험도가 다른데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 따라 다니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한국이 주도하여 북한 핵제거를 강행하여야 한다.

4) 병행 해야 할 정치전에 대한 대응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을 제압하고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루려는 북한의 장기 비전의 실현 수단으로 개발하고 있는 도구다. 북한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한국 내에서의 정치전, 즉 한국 국민을 분열시켜 친북화된 국민들로 친북 정권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려는 ‘정치전 지원 무기’이다. 만일 북한이 ‘남반부 해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북한 주도의 통일을 포기하게 된다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북한의 대남 정치전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북핵 위협 제거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된다.

북한은 한국 사회 내에 친북 지하 조직을 구축해놓고 이들이 언론 자유를 앞세워 반체제 선동선전을 전개하면서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전은 한국 국민의 정치적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한국 국민 전체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하여 단합된 의지를 보이게 된다면 북한의 정치전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남북한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정치전이며 북한의 핵문제도 이러한 정치전에서 파생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야만 바른 대응 정책을 세워 나갈 수 있다. [7]

2) 외교적 대응

군사적 대응 이외에 외교적 대응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여 이루려는 외교적 목적의 하나인 북·미 관계 개선에 대응하여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면서 그 수위를 조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한미동맹을 폐기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거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말로만의 제재가 아닌 행동이 따른 제재를 가하여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투입하려는 자원을 국제사회에서 얻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일방적 북한 비호도 견제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막는 것을 못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 계획도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다.

3) 한국 주도의 대응

북한 핵문제는 한국의 통일정책과 관

북한 정권 - 주민 분리 심리전 펼 때

본회 '휴전 60주, 북핵위협과 남·북관계 전망' 대토론회 토론 요지

●안인해 고려대학교수= 우선 우리의 국방력을 탄탄히 한 후 북한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평화협정을 한국이 도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 본다.

중국은 모택동사후 등소평이 들어서 개혁개방이라는 패러다임 시프트(paradime shift)를 했는데 북한은 부자세습정권을 하는 과정에서 폐쇄정부를 지켜야 했고 핵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우박사님은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노력으로 이런 북한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런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다 실패하지 않았는가. 클린턴 정부 때 정밀타격(Surgical Strike)계획을 세웠으나 결국 실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현재는 북한이 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농축우라늄공장은 매우 분산적이고 은닉적이어서 실제로 이를 찾아내 정밀타격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키 리졸브' 같은 강력한 한미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은 빈번한 항공대응작전으로 대량의 연료를 소모해야 하고 인민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결국 북한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기만 한다.

외교적 대응으로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야 한다. 북한을 어떻게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하나의 동기를 부여한다면 북한이 현재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북·미관계 개선일 것이다.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클린턴정부 2기때 북·미 정상회담이 추구 됐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다. 오바마 정부도 2기에 들어섰다. 클린턴정부 때와 같은 발상을 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먼저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한국이 북·미관계 개선에 지렛대 역할을 해 북한을 평화세력으로 만들면 어떤가. 또한 후반기에 가선 평화협정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 평화협정 이슈에서도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며 우리의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우선 우리는 경제력이 커지고 국방력이 커지면 분단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시각을 가졌었다. 시각의 오류였다. 둘째는 정상회담이나 남북접촉을 할 때 큰 틀 없이 그저 회담을 갖기만 하면 회담하는 그 자체를 성공이라고 봤다. 셋째는 북한의 3차 핵실험 후에야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인데 이미 1, 2차핵실험 때 이를 인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했다. 북한 핵문제를 6자회담 같은 대화로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과소평가 했다. 크리스토퍼 힐 대표는 6자회담을 돌아보면서 잃어버린 퍼즐조각을 찾지 못한 것처럼 남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회담실패의 원인을 인정했다. 우리도 왜 남북협상이 성공하지 못했는지 솔직히 반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한의 협상대표단은 너무 자주 교체됐

다. 회담대표가 미처 지난 회담 경과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협상테이블에 앉고, 회담상대방과 회담내용을 알만하면 떠나버린다. 중국대표나 북한대표는



사회·문명호 본회 주필

실마리를 푸는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 복지예산을 줄이고 국방비를 늘려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우수한 성능의

력연구조차 단단히 묶여 있다. 예를 들면 사용 후 핵연료의 플루토늄 분리 실험도 할 수 없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사용 후 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분리하고 있다. 이 플루토늄은 고속증식로의 연구뿐 아니라 북한 핵에 대한 간접적 압력수단도 된다. 플루토늄만 확보하고 있으면 필요에 따라 그리고 국제여론이 허락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핵폭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라늄농축도 우리에게도 허락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원자료가 20기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 수준 허락되어야 한다. 둘째는 북한의 정권교체에 대한 것이다. 6자회담이나 국제적 압력만으로는 북한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해 졌다. 그렇다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은 북한의 정권교체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손을 대야한다. 천안함사건 이후 대북방송을 재개한다고 해놓고선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탈북자 수가 경기도 양주군 인구만큼 된다. 이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는 북한 인권문제를 통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이 문제는 아예 말도 못하게 했다. 넷째는 북한의 선전선동을 막는 일이 중요하다. 3차 핵실험 후 종북세력들은 남한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반대하는 세력은 소외시키고 정리하는 정책을 적극 펴야 한다. 북한 핵문제를 오랫동안 다룬 천영우씨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바 있다. 만일 새 정부에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북한은 천안함사건 같은 심각한 도발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적어도 북한의 도발과 종북세력의 연계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정일화 대한언론인회 편집위원(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대한민국은 휴전협정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 준비를 단단히 했다. 회담의 최종담판이 경무대에서 이뤄졌다. 미국대표는 이승만 대통령과 1)휴전협정을 하되 정치회담은 90일 이내에 무력화 시켜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적 선전선동운동을 차단한다. 2)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방어를 보장한다. 3)상당한 경제원조와 그 경제원조 중 2억 달러를 휴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지급해 한국경제부흥을 돕는다. 4)한국군을 20개 사단으로 증강한다는 내용을 타결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한국은 휴전 후 국가안보를 유지할 수 있었고 경제발전을 꾀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휴전회담 진행 중 2만5천명의 반동



토론·안인해 고려대학교수



토론·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토론·도준호 본회이사



토론·정일화 본보 편집위원

평화협정 한국이 주도적 역할 해야 기술우위 유지 국방비 증액등 필요



플로어 토론·이도형 한국노동발행인

10년이고 20년이고 자리를 지키면서 회담을 이끄는 데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으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었겠는가. 북한의 세습정치에 도움 되는 일은 하지 않았어야 했다. 북한 주민이 자신의 경제상황이 어떤 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정부는 잘한 일이 있다. 지금 북한은 신의주지역 남쪽에는 모두 한국 방송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북 심리전을 재개한 것도 매우 잘한 것이다. 북한 주민에게 정권의 실상과 바깥세상을 올바르게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준호 대한언론인회 이사(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북한 핵문제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 자세로 해결의



플로어 토론·제재형 대한언론인회 고문

크루즈미사일을 개발해 놓고 있고, 북한 무력에 대항할 수 있는 탁월한 무기도 사울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항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라든지 주요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Kill Chain을 갖춰야 한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둘째는 미국이 북한핵문제에 대해 강경자세를 취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핵 재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셋째는 북한에 대한 국제압력을 가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 중국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취해야할 적극적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년 3월로 종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이다. 이 협정에 의해 우리는 원자

소수에 끌려가는 민주주의 안된다

3월 22일 새 정부조직법이 제출된지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래 52일간 야당이 ‘새 정부 출발’을 인질로 잡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말대로 “온갖 숙원사업과 삼라 만상을 다 해결하려” 나왔기 때문이다.

그 바로 5일전 여당은 ‘21일간의 식물(植物) 정부’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정부조직과 하등 관련이 없는’ 4대 강 사업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약속하고 야당과 법안 타결에 합의했다. 이때 여야는 “합의문에 기술된 사항 외엔 새누리당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좌파언론들이 비난하자 민주통합당은 이를 뒤엎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준 뒤 정부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향후 매사가 이 모양일 것이니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전에도 그러했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 꼴로 소수 정치패당의 인질이 된 것은 ‘국회선진화법’이란 괴물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법은 세계의 모든 국가가 적용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버리고, 국회의원의 60%가 동의하는 법안만 상정 가능하게 한다. 소수정당의 허락이 없는 한 국가가 할 일이 없게 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5000만 국민이 국회의원 선거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작년 총선 직후 남경필 등 새누리당의 중도적 기회주의적 의원들이 야당과 함께 제의해서 태동했다. “국민은 18대 국회를 대화, 타협, 소통, 민생이 아니라 직권상정, 쇄사슬, 해머, 전기톱, 최루탄, 몸싸움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만든 소위 ‘몸싸움 방지법’이다. 그러나 쇄사슬, 해머, 전기톱, 최루탄을 대체 누가 들고 나왔는가. 지

난 18대 국회는 대선에서 진 소수 민주당의 독립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의원 171석의 여당이 제안한 한미 FTA, 미디어법안 등 국가적 중대 사안은 하나도 논의될 수 없었고 수천 개의 법안이 쓰레기처럼 표류했었다. 그런데 이 꼴을 보고서도 자기들만이 ‘도덕적 국회의원’인양 소수야당에게 ‘무

특별기고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경제학

다수결무시 ‘국회선진화법’ 걸림돌 타협모르는 좌파집단 당할 수 없어

조건 타협(굴복)하자’는 법을 만들었으니 향후 국회가 무용지물이 될 것은 어림애가 봐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촉했고 통과되자 황우여 대표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감격했으니 그 지능에 장탄식할 수밖에 없다.

다수결은 실상 우리가 매일 민주사회의 규칙으로 배우고 체험하는 것이다. 초등생이 소풍갈 곳을 정할 때나 성인이 대통령을 뽑을 때나 다수결로 선택한다. 그 결과가 불만족해도 내가 양보하고 승복함이 상식이다. 극렬한 노동조합도 파업할지를 다수결로 정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다수결 판정으로 국법의 기본을 만든다. 그러나 좌파정치집단은 이 단순 무구(無垢)한 민주주의원칙을 항상 무너트리려 해왔다. 그

들의 주장은 다음의 노무현 대통령 홈페이지 글에서 장황히 설명되는데, 요점은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의 핵심원리”라는 것이다.

“다수결정은 이를 도저히 납득 못하고 양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강행하면 공동체통합에 손상을 입힌다. 따라서 다

에 승복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의(本義)이며 세계 모든 성숙한 민주국가의 관행인데, 그는 이것을 모르는 대통령이었다.

한국의 좌파들이 언제 타협과 설득에 응했나. 그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민주주의적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집단임을 과거 광우병 촛불시위나 수많은 국회만행 행태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다수결규칙이 없다면 양보하고 승복하는 집단은, 나라가 결판이 나건 말건, 끝까지 불복하고 행패하는 집단을 당할 수가 없다. 이런 정치를 부르짖는 사람들의 목적은 국민다수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규칙을 파괴하여 “그들만의 민주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층은 이제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해 다수결 기준을 회복시키는 방안을 검토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대의정치를 도태시키자는 목적을 이룬 야당이 응해줄 리 없으며 정작 웰빙 새누리당의원들에게 그런 ‘집단적 의지’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법의 존폐에 정권의 운명이 걸린만큼 여당은 반드시 이를 폐지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 어떤 국난(國難)의 사태라도 감수하고 인질범에게는 한 치의 양보라도 하면 안 된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다. 국회가 이 모양이니 국회가 만든 법이 위신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정치가들이 다스리는 나라이니 공권력도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50일간이나 버틴 것이 그나마 전의 보수정권에서 못 보던 버팀이었다. 이 정권은 향후 모든 불법 무리한 소수집단을 대처함에 있어서 좌파 이상으로 끝까지 버티는 힘을 보여주어야 국민의 지지와 임기동안 국정운영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회]

3면에서 이어집니다.

포로를 휴전회담대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방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세계에 알렸다.

휴전체제는 지난 60년간 이런 기조위에서 변영의 길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 남북한 모두 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이나 소련, 또는 미국과 같은 대국이 개입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 핵 연구를 원자력발전 쪽으로 돌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원자력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 북한은 핵폭탄 쪽으로 연구를 기울여 3차에 걸친 핵실험을 했다. 원자력발전은 핵물질을 소량으로 천천히 태워 핵에너지를 전기로 전환하게 하는 것이고 핵폭탄은 일정량의 핵물질을 모아 양분한 후 가운데 격발장치를 넣어 필요할 때 폭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볼 때 원자력발전이 대단히 높은 기술수준이다. 중국은 1963년 원자탄을 만드는데 성공했으나 지난 40년 이상 원자로개발에 실패했다. 많

은 노력을 했으나 사고만 내고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핵 과학 기술 수준은 한국이 월등히 앞섰다.

핵무기는 반드시 핵무기로 제압할 이유가 없다. 과거 이라크 핵위기 때 미국은 토마호크미사일과 스텔스기로 모든 핵 의심시설을 단시간에 파괴했다. 오늘 날은 레이저 무기, 음파무기와 같은 더 정밀한 핵무기 파괴수단이 있다. 이미 우리는 이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정책 의지와 국방비증강으로 이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우 교수= 안인해 교수님이 북미평화협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미북평화협정은 곧 북미관계정상화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자동적으로 무효화된다. 주한미군철수도 같이 따라오게 된다. 우선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형남위원이 말한 몇 가지 시각은 매우 올바른 지적이라고 본다.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에 비해 월등히 강하지만

공격흡수 능력이라는 면에서는 북한보다 아주 약하다. 북한은 전쟁이 나서 천만 명이 죽어도 꿈쩍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1,000명의 사상자만 나도 난리가 난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회담을 갖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고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나갔다. 회담대표를 바꾼 것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회담대표를 자주 바꾸니 우리 대표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았다. 무슨 진전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많은 실례가 있다.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은 잘못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제여론을 거스르면서 핵무기를 만들 수도 없고 또 북한 핵무기를 제어하는 방법은 핵무기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방면에 대한 상당한 기술 축적도 되어 있다. 경제력과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이도형 한국논단 발행인= 토론중 북미평화협정문제가 나왔는데 평화협정이 되면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월남이 어떻게 망했는가. 파리평화협상을 통해 월남정부가 거덜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부의 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층이 부패하고 욕심이 많으면 나라가 잘 되지 않는다. 잘못된 정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인재가 많아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 주한미군철수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합참에 내려졌을 때 많은 우수한 군인들이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전신작전권환수라는 애매한 말로 그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방안을 제시하여 한미연합사령부(CFC)가 2015년으로 해체되게 된 것이다. 북한이 붕괴할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중국도 결국 민주화 될 것으로 본다. 소련이나 일본제국주의가 망할 때를 보라. 국방비를 120%씩 썼다. 지금 북한이 그렇다.

●제재형 대한언론인회 고문= 지금 언론사들 특히 TV등 방송사들이 하는 행태는 매우 위험한 수준에 와있다. 북한 정권을 대변하는 모양이다.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고 공산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을 그대로 중계하듯 보도해 주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대한언론인회를 비롯해 여러 언론단체들부터 일어나서 이들을 일깨워야 한다. [국회]

종북세력 척결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믿기 어렵고 싫은 일이지만 대한민국(大韓民國)에서는 지금 ‘종북(從北)’ 세력이 국가 안보는 물론 안위(安危)를 위협하는 위험한 양상(樣相)이 전개되고 있다. “아직 적화통일(赤化統一)은 아니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화(共產化)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2기 좌파 정권 때였던 2004년 9월9일 1,600여 명의 사회 각계 원로들이 연서(連署)하여 발표한 시국선언에 실렸던 우울한 경고(警告)였다. 그로부터 9년의 세월이 경과한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때의 대한민국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2007년에 있었던 제17대 대통령선거 때 이 나라의 정치시계를 되돌려 놓았다. 10년간 지속된 ‘친북(親北)·좌파(左派)’ 정부를 내보내고 ‘보수(保守)·우파(右派)’ 정부를 다시 복귀(復歸)시킨 것이다.

그로부터 다시 5년의 세월이 흘렀고 작년 4월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와 12월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우익(右翼)’ 세력은 ‘종북’ 연합세력의 정권탈환 시도를 물리치고 정권을 지켜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렇게 이루어진 보수·우익 세력에 의한 정권의 수성(守成)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 대한민국의 이념적 동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작년에 실시되었던 두 차례의 전국 선거 과정에서 이 나라 좌파 세력의 이념적 정체성이 보다 분명해졌다. 이 나라 좌파 세력 사이에 새로운 이합집산(離合集散)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民노당)의 후신(後身)인 통합진보당(통진당)을 주축으로 하는 이 나라 좌파 세력의 정체성이 단순한 친북이 아니라 종북이라는 자가진단(自家診斷)이 나온 것이다.

종북은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현안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입장을 배척하고 북한의 입장에 추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종북 세력의 행적(行蹟)이 바로 그 같은 사실을 입증해 준다. 이 나라의 종북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북한의 정통성을 옹호한다.

그들은 북한의 6·25 남침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북침론을 주장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를 배척하고 오히려 북한의 폭정(暴政)을 옹호한다. 그들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눈을 감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한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이룩한 놀라운 경제발전상을 경제수탈의 결과로 폄하(貶

특별기고



이동복

·전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전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
·15대 국회의원

대한민국아닌 북한의 정통성 옹호 전교조등 과감한 인적청산 단행을

下)하고 북한 경제의 파탄(跛綻)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미국과 대한민국의 경제봉쇄에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그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책임도 미국에 전가(轉嫁)시킨다. 그들은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의 하수인이 되어 ‘남조선혁명을 통한 조국통일’이라는 북한의 적화통일방안(赤化統一方案)의 추진에 적극 협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인 한미 안보동맹의 파기와 주한미군의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획책하는데 혈안(血眼)이 되어 있다.

종북 세력의 책동 중에서 대한민국에 가장 유해(有害)한 것은 교육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좌편향(左便向) 공작이다. 최근 회원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교단(敎壇) 장악 현상은 여전하다. 이들 전교조 교사들은 왜곡된 내용의 검인정 교과서들과 그들이 임의로 작성하는 수시교육 교재를 이용하는 ‘반한(反韓)·반미(反美)·친북(親北)’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주입

을 주도했던 종북 성향의 좌파 인사들이 작년 12월의 대선을 전후하여 원내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민주당)의 당권(黨權)을 장악함으로써 동당이 종북 세력의 숙주(宿主)로 변질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걱정스러운 일은 정치권을 비롯한 제도권의 이에 대한 대처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종북 세력의 존재는 인체(人體) 내에 발생하는 암세포(癌細胞)와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사법기관은 사법기관대로 이들 역시 종북 세력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각기 교란(攪亂) 당한 가운데 ‘종북’ 세력에 대해 정면 대응을 회피하면서 대증치료적(對症治療的) 대응으로 오히려 ‘종북’ 세력의 역량을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정법 위반으로 법외노조(法外勞組)임이 분명한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상대하여 위법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헌법 제8조②·④항의 명문(明文) 조항에 의거하여 시민단체가 제출한 ‘통진당 해산청원서’

를 처리하지 아니 한 채 갈아 문게온 그 동안의 정부 관계당국의 처사나 전교조 문제를 득표 전략의 차원에서 인식하여 오히려 전교조를 포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새누리당의 움직임, 그리고 전교조 등 종북 세력이 관련된 재판에서 오히려 종북 세력 편을 거드는 판결이 대세(大勢)를 이루는 사법부의 행태(行態)등이 그 사례들이다.

이제 박근혜(朴槿惠)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상황에는 근본적 전환(轉換)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큰 발상(發想)의 전환이 필요하다. 종북 세력의 단호한 척결(剿決)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단행해야 할 시급한 조치가 몇 가지 있다. 우선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신분을 허용하는 규약 때문에 이미 합법노조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인 전교조에 대해서는 마땅히 즉각 합법노조 자격을 회수하여 법외노조(法外勞組)로 만드는 행정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8조②항이 요구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구비하지 못한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의 청원을 받아들여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청구하여 동당의 해체를 추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히 정부와 문화·예술계등 각계에 잠복해 있는 종북 세력 잔재(殘滓)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적청산이 단행되어야 한다.

이들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교육계에 깊게, 그리고 넓게 뿌리 내린 종북 문화를 청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야, 이 나라 내일의 주인공들인 청소년들이 나라의 과거를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남북한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올바른 통일관을 함양(涵養)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들은 정부나 정치권의 노력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전 국민, 그리고 특히 학부형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요구된다. [국문]

4월 건강포럼 20일 개최

윤창욱 박사 ‘건강검진 바로 알기’ 강의

이달 20일에 열리는 토요건강포럼에서는 ‘건강검진 바로 알기’에 대해 내과 전문의인 윤창욱박사의 강의를 듣는다. 윤 박사는 서울 중구의사회 학술이사로 위, 대장, 내시경, 비만클리닉, 만성질환 전문의이다.

한편 3개월간 휴강했던 토요건강포럼이 지난달 16일 개강했다. 이날 건강포럼에서는 개강 프로그램으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에 대해 이윤수 박사(전립선 전문의)가 최근 50대 이후 노년기 세대의 전립선 질환 급증세와 전립선암에 대해 강의했다.

이윤수 박사는 “전립선 비대증은 내

분비 기능이 떨어지는 고령자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남성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백인이 동양인보다 많이 걸리며 채식보다는 육식이나 우유 섭취가 많은 남자에게 빈도가 높다.

우리나라에서도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중년 남성의 상당수가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60~70년대 만해도 전립선 비대증은 노인이면 누구나 걸리는 것으로 그냥 견디다 사망하면 그만인 병으로 취급받았고 어쩌다 수술을 한다해도 지금처럼 복강경, 로봇수술이 아닌 복부를 개복해 수술해야만해서 환자들이



3월 건강 강좌에서 강의하는 이윤수 박사.

사망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전립선비대증이 당연히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문의로부터 정확한 진료를 받아 요즘 새로 개발된 약을 쓰고 만일 증상이 계속적으로 불편할 경우 수술로 전립선을 떼어내 배설에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전립선암의 일반적인 증상

으로 “①낮 뿐 아니라 밤에도 소변을 자주보는 편이다. ②소변 볼 때 힘이 든다. ③소변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다. ④허리, 엉덩이, 넓적다리에 통증. ⑤아랫배가 빠근하다. ⑥소변 본 후 시원치 않다. ⑦소변 볼 때 통증이 있다. ⑧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⑨소변을 참지 못한다. ⑩요도에 불쾌감이 있다.”고 말하고 해당사항이 5개 이상이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이번 건강포럼에는 새해 첫 개강이어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고 특히 연로한 조성국 회우가 일찍부터 참석, 자리했고 특히 뒤풀이에서는 오전식, 이형균 회우의 회고담과 재담으로 토요일 오후 한때를 즐겼다. 이날 이병대 부회장이 뒤풀이 찬조금을 냈다. [국문]

이보길 건강포럼간사記

방통위 재편 모니터링 체제로 갈 때

5공때만해도 방송은 권력에의해 장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방송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문들도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언론이 권력의 입김에 눌던 시절이다. 지금은 어떤가. “지금 이 어느 시절인데 권력이 언론을 장악해, 방송도 통제할 수 없을 걸” 흔히들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요즘의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웅변해 준다고 본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신문은 어렵도 없고 방송은 아직도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왜 방송은 신문보다 권력에 약한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여기에는 방송의 구조적, 생태적 약점이 도사리고 있다. KBS, MBC, EBS등 지상파 방송의 사장은 이사회 추천이라는 눈감고 아웅하는 요식절차가 있으나 들러리에 불과할 뿐이다. 정부의 입김으로 미리 정해 놓은 사람을 이사회가 뽑든가 또는 직접 임명한다. 이러한 장치에서 자유로운 지상파는 민영인 SBS뿐이지만 다른 지상파 방송들과 마찬가지로 3년에 한번씩 갱신되는 전파사용권으로 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극한적 상황이었지만 정부가 전파사용권의 연장을 거부할 경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전파는 국민의 것, 정부의 것’이라는 글로벌한 통념은 양의 동서를 불문하고 통용되는 개념으로 전파의 특수성때

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신문의 경우 사장을 임명하는 사람은 신문기업의 소유자(오너)이며 누구를 임명하든 권력이 간섭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신문 용지의 수급을 통제할 수도 없고 잉크를 규제할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신문은 정보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며 방송은 정보



조창화

·본회 명예 회장
·방송인

는 생각이 든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방송업무의 관장이 어느 부서에 가든 그것이 정부부처인한 방송이 안고 있는 한계를 초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방송 관련업무가 방통위에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방송장악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방통위의 방송위원 추천권(3분의1)

의 명칭부터 바뀌 콘텐츠를 중심으로한 방송본연의 업무를 재구축했다더라면 방송계가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겠다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현상에 대해 우리는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융합이란 것은 방송이 통신 닮아가고 통신이 방송 닮아가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는 흔히 두 분야가 합쳐져 아주 다른 것이 탄생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두 분야가 서로 가미되어 새로운 매체로 변모하는 이른바 뉴미디어는 IT의 발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뉴미디어의 산실은 방송쪽이기보다는 IT쪽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분야로 뉴미디어쪽을 찍은 것은 타당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방통위의 재편이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참에 방통위의 명칭부터 고치고 방송 중심의 실행 기관으로서 콘텐츠와 모니터링을 강화한 방송발전의 길을 다져 나가야한다. 방송은 한번 나가면 그만이다. 기록이 안된다. 일회성의 방송을 철두철미 모니터링하여 다채널 다매체에서 화산처럼 뿜어내는 콘텐츠를 감시하고 제도함으로써 방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4]

뉴 미디어 산실 IT서 일자리 창출 콘텐츠 감시로 방송의 질 높여가야

와 오락을 제공하는 거대한 장치 산업이다. 이러한 생태적 한계는 종합편성은 물론이고 지역방송사업자(SO), 보도채널 등 모든 방송에 해당된다.

박근혜정부의 야심적 정책의 산실로 여겨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발족을 놓고 야당이 방송장악의 저의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발목을 잡았던것은 어떻게 보아도 좀 잘못 짚은게 아닌가하

이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의도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지어 지는 위원회의 흐름을 야당이 막는 것은 역부족이다. 차라리 MB정부에서 무리하게 짝 지어진 방송과 통신의 동거를 훨훨 털어버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 디지털정책, 뉴미디어, 인터넷, 주파수업무 등을 밀어주는대신 방통위

지난 2월 27일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소속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이 “표결을 해서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이 낫다”고 밝히고 “식당주인이 밥을 짓겠다는 데 찰밥이든 흰밥이든 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발목 잡고 흥정하면서 옆치락뒤치락 하던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국회제출 50여일이 지나서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음날 신문기사 중에는 “합의된 내용은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라는 부분이 있었다. 식당주인은 쌀밥을 지으려다가 잡곡밥을 짓게 된 형국인 것 같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이 아니고 청해도 될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을 보며 중세시대 영국의 논리학자이며 수도사였던 윌리엄 오컴의 면도날 이론이 떠올랐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단순한 설명을 채택해야 하며 단순할수록 더 좋다”고 했다. 쓸데없는 이론은 면도날로 자르듯이 제거해 버리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꼬인 새 정부 출범을 보며 오컴의 이론에 동조하는 마음이 더 강해졌다. 왜도난마(快刀亂麻)와 비슷한(?) 꼬인 문제는 쉽게 푸는 길을 찾아야 한다. 문외한의 단답형 정치해법 세 가지를 적어본다.

첫째,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 민주정치에서 소수의견의 존중은 귀한 일이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보다 앞서서는 안될 일이다. 생각이 다른 집단이 존재하는 한 다수로 결정된 밥짓는 식당주인의 생각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을 무시한다면 선거는 뭇 하러 한다는 말인가. 국회에서 토론하다 결론이 안나면 투표로 해결해야 한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민주정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가. 선거에서 패한 48%를 존중하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패한 48%를 존중하려고 이긴 51%를 목살해도 되는 것은 아닐 터이다. 소수의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소수 패권주의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앞으로의 정치가 암울하다는 걱정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은 정치 무질서, 당파 싸움, 당파 아집의 선진화를 가져올 뿐이다. 사심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다. 갓 쓰고 자전거 타는 꼴인 것 같다. 흥정 촉진법이나 국회 식물화법이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것이다. 이대로는 국회에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같이 외유 나가는 일 빼고는 말이다.

둘째, 정치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누구든지 어떤 행위로 개인이나 사회, 국가에 손해를 끼쳤으면 책임을 묻

제대로 밥 짓는 나라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
·시사평론가
·전 신성대 교수

고 처벌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큰일을 담당하므로 문제가 있으면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누리는 혜택에 비례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잘못의 무게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행태는 마무리 되어야 한다.

핵 실험한 북한은 선제타격, 제2의 조선전쟁등으로 위협한다. 한국경제는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데 대통령이 일하게 해달라고 호소나 해서는 나라꼴이 제대로 잡히기 어렵다. 헌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일 못하는 국회는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울화도 치민다.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고 정부 기능이 마비된 것까지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인 실질적인 책임을 말이다.

요즘 말이 많은 서울시의 새빛동동섬 같은 문제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오세훈이나 박원순 둘 중 하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 오세훈 전 시장이 개인의 영달이나 인기를 위해 사업을 추진했고 비리가 있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박원순

시장의 처리가 전임자에 대한 감정이 개입됐거나 정치적 판단의 다른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거덜내고 있다면 또한 책임지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높은 이들의 잘못된 정치행위들이 면책특권이다 뭐다해서 덮여지는 정치풍토는 고쳐져야 한다. 책임있는 행위와 책임지는 결과가 뒷받침 돼야 한다.

셋째, 야당도 국정동반자 구실을 해야 한다. 여야는 국정 운영에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정치사를 통해 본 정치의 목표는 오직 집권이고 방법은 아무래도 좋다는 식인 것 같다.

야당의 경우 집권당이 실수를 해서 국민의 인기를 잃게 만드는 것을 최고의 전략으로 여기는 것 같아 보인다. 총리나 장관의 약점을 부각시키고 힘을 빼는 능력이 탁월한 정치력으로 돋보이는 정치행태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정치가 네가 망해야 내가 흥한다는 도식 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집권당이 실수하도록 유도하려는 꼼수에 매달리고 같은 값이면 판죽을 걸어 넘어뜨려야 훌륭한 정치인으로 우뚝 서는 것 같은 풍토도 달라져야 할 일이다.

지난 대선 때 야당이 박근혜 후보를 이명박 정권과 공동정권이라고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야당의원은 국정운영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애기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야당의원도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대우를 받으면서 특권을 누리려면 당연히 그 시대 국가운영의 공동책임자인 것이다. 국정파트너이어야 한다.

해외 인재 활용길 활짝 열어야 한다

새로운 선진화 사회, 창조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에 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의욕이 넘쳐흐르는 새 정부출범 초기의 갖가지 인사훈선도 그러하려니와 기대를 모았던 정부요직의 후보들이 자질검증의 호된 시련 속에 낙마하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 정부의 꿈이 걸려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초대장관 후보가 삼고초려의 기대와는 달리 모든 꿈을 포기하고 떠나버린 과정이 너무 실망스럽다.

대의를 벗어난 정쟁이 내일의 발목을 잡고 어렵게 찾아낸 해외인재를 쫓아낸 것은 아닌지,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우리의 사회구조를 살펴볼 일이다. 김종훈 미국벨연구소 소장이 모국을 떠나며 남긴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여러 혼란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던 꿈이 산산조각 났다”는 그 말에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과 깊은 상처가 담겨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일자리창출은 물론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려는 꿈이 담겨 있었기에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런 점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의 검증이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논란의 초점은 그의 2중국적이었다. 그가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기 이전까지 ‘미국인’으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는 점이 문제였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2중국적자도 장관이 될 수 있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보안·기밀 분야, 신기술 보호 및 주요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글로벌인재를 찾아내려면 국적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본인에게도 문제는 있었다. ‘평



“조국에 헌신” 김종훈 좌절 안타까워 후진성 탈피 국가경쟁력 키워가야

양감사도 하기 싫으면 그만’ 이라지만 검증받기도 전에 떠나버리는 모습은 아름다울 수가 없다. 가족의 만류가 사퇴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갖가지 의혹이 난무하는 한국적인 정치풍토에서 무엇이든 1천억 원이 넘는 미국국적 포기세까지 내느냐고 반대할 법한 일이었다.

한마디로 “가족이 깨질까봐”라는 부분에는 비난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가 미국에 돌아가 마음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꼬집은 부분은 한쪽이 피를 보

아야하는 한국정치와 뿌리 깊은 관료주의였다. “진짜 비판받아야 할 것은 한국정치에 대해 너무 순진했다는 점”이라는 솔직한 고백을 이해할 만하다. 이처럼 김종훈 사퇴여파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일깨워주는 일종의 경고처럼 느껴진다. 또한 우리 사회가 좀더 열려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셈이

다. 시장경제의 국경이 사라진 오늘, 해외인재들에게 문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또한 복잡다기한 사회구조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지난날의 사고에 잡혀있는 한, 세계화 구호는 허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단일민족으로 자란 우리는 유난히 혈통집착이 강한 편이다. 자주 청소년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나 김용 세계은행총재, 최근에는

빙판의 여제(女帝) 김연아나 세계그린을 누비는 골프천재들, 아니면 지구촌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싸이 등을 우상으로 삼는다. 이미 이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세계의 별’로 떠올랐음을 말해준다.

혹자는 한국인을 유대인과 견주기도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교육을 추켜세운다. 인재 우수성과 장래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유대인을 뛰어 넘었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바로 인재활용이다. 미국이 각국의 유능한 유학생들을 불러들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나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이 자국 출신 해외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1명의 인재가 1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견희 삼성 회장이 20년 전 신경영을 주창할 때 밝혔던 ‘인재론’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 진대제, MIT박사 황창규 씨를 영입했고 결과는 반도체·전자 신화로 이어졌다.

한국은 중국, 인도 다음으로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두뇌유출이 늘어난 반면 인재활용은 애국주의라는 정치논리에 묻혀버린 게 안타깝다. 노벨상을 생각해서라도 선진 과학기술을 접한 인재를 키우며 끌어들이는 대책이 절실하다. [4]

6면에서 이어집니다.

잘못한다고 짓기만 하면 되는 ‘집지키는 개’와는 달라야한다. 물론 감시하고 비판하는 능력과 가치는 인정되고 존중돼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 목표는 국가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 민주정치일 것이다. 민주정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민주사회는 사라지거나 망할 것이다. 역사를 통해 볼 때 많은 나라들이 거칠고 뒤떨어진 집단의 침략에 무너지고 망했던 사례가 많았다. 로마가 그랬고 중국에서도 송·원·명·청의 경우처럼, 그런 일이 많았음을 명심해야한다.

단군 이래 최고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번영의 시기는 한없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역사의 결론이었다. 북한의 위협 못지않은 것이 갈라진 국민 의식이다.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겠다고 위협하고 방 송사와 은행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등은 북한을 편들고 미국을 탓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백년전쟁’이란 독버섯 같은 영상물이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며 인터넷을 해집고 다닌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의 망할 조건을 우리 사회가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과 민주사회를 지키고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믿기 어려운 세상이 오는 것 같아 겁난다. 자칫 김정은의 채찍에 신음하게 될까봐 무섭다. [4]

회우들이 펴낸 新刊

진철수 회우 ‘KOREA RISING’

언론의 수난기인 1970년대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과 편집국 취재담당 부국장으로 언론 제1선에서 일했던 진철수 회우(재미언론인·관훈클럽 초대총무)가 그 시절의 쓰라린 체험을 ‘인사이드’ 입장에서 다룬책, ‘Korea Rising-코리아 라이징’을 펴냈다.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하는 진철수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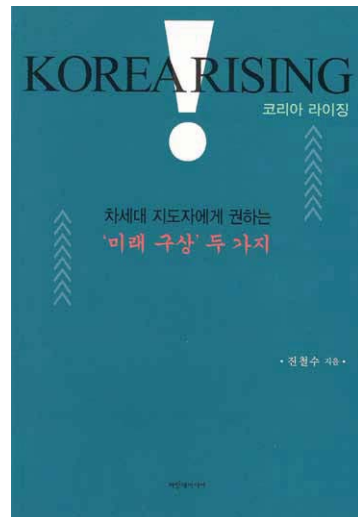
이 책은 한국 언론 수난사의 일단을 기록했을뿐 아니라 21세기의 글로벌 환경에서 계속 뻗어나가려는 한국이 고민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의 분석과 대개혁 구상도 시도하고 있다.서언(序言) ‘이 시대의 고민과 가능성’에서 ‘한국이란 나라,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한국이란 나라,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제목을 달아 현재 한국이 불안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어떤 정치 철학과 미래구상이 가능한지를 숙고하며 고민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좌절은 이에 대한 본격적인 진단과 처방을 논하기 전에 젊었을때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게 된 내력을 짚어보고 있다.

PART 1. 파란만장던 동아일보 시절
PART 2. 21세기 한국과 대선전후

PART 3. 4·19혁명 전후 PART 4. 결어; 한국이 아시아의 변화를 리드할 것인가로 짜여진 이 책은 보통의 자서전과는 그 형식을 달리하고 있다. 저자는 책의 모두에서 다음과 같이 출판의 변을 적고 있다.

“자기 잘못을 두 가지 이상 적어 넣지 않은 자서전은 읽을 가치가 없다고 어느 영국 작가가 말했다고 한다. 이 책은 본격적인 자서전은 아니다. 여하튼 잘못된 일에 대한 자백이 두 군데 이상 들어 있다. 평생 저지른 과오와 죄를 다 적으려면 아마 지면이 몹시 부족할 것이다.

결국은 자서전의 전통을 따라 자화자찬 투성이가 되어버렸다. 4·19 민주혁명과 유신헌치 같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언론 1선에서 체



험했던 이야기들을 남기고 싶어서 쓴 책이다.

마침 2012년 대선때라, 주요정당들 노선의 투명성과 교육 개혁을 통한 생존경쟁에 관한 소견이 상당히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진철수 칼럼 선집은 PART 5에 수록했다. 한편 진철수 회우는 지난 3월20일 오후 5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원로언론인등 100여명이 참석, 출간을 축하했다. 진회우는 이 자리에서 현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고품질 뉴스 사이트 (sisdaily.com; usabriefing.net)의 동인으로 참여를 촉구하는 벤처투자 설명회도 가졌다. [4]

인사검증 난맥상 지적 '사후 약방문'

‘여성대통령 시대’ 개막의 신선함도 잠시, 박근혜 정부는 출범 한 달이 넘도록 정부구성을 못했다. 국무총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방장관, 법무부차관 등 차관급 이상과 헌재소장, 청와대 비서관 등 10여명이 줄 사퇴했다. 신문들은 초대형 난맥 인사가 ‘성접대 의혹’으로 절정에 향할 때까지 검증시스템 비판보다 개별 인물 검증에 주력했다. 공직인선은 능력만으로 친밀도를 따지는 집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시대정신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한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진작 강조했다면 인사 참사를 덜 수 있었을 것이다.

신문들은 핵실험 이후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 정부 구성이 지연되자 매우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3월7일 ‘북도발 앞에 놓인 식물정부’ 사설에서 “전쟁에선 최우선적으로 상대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인데, 이 나라는 스스로 지휘 체계를 공중에 띄워놓고 있다. 만약 북이 지금 도발해오면 청와대와 정부에서 국가의 명운을 가를 결정들이 신속 정확하게 내려질 수 있겠는가. 정치권이 무슨 대단한 이해타산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 같은 집단에 위협을 받는 나라가 이런 지경인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통탄했다.

엇갈린 식물정부의 원인 분석

원인 분석은 엇갈렸다. 문화일보는 7일 ‘꼼수 드러난 민주당, 정부조직법 더 이상 뒤흔들지 말라’ 사설에서 “민주당이 종합유선방송 등의 중립성을 주장하다 KBS, MBC 사장 문제로 논점을 옮겨간 것은 자가당착이다. 정부 시스템에 관한 한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을 존중하는 것이 대선 패배에 대한 승복이다”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정치 없는 대통령의 위험한 질주’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야당의 일방적 발목 잡기로 돌린 것도 문제다. 부실 지각 인선으로 정부 출범을 지연시킨 장본인은 박 대통령이다. 야당은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있는 것이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부실 인선이 빚은 참사다.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기본적인 도덕성과 정치적 건강성이 담보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문들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내건 미래부의 조직이 전체 정부구성까지 걸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한 분석에 소홀했다. 어디서 말건 기능만 있으면 된다. 한국의 스마트폰은 정보통신부 없이도 세계1,2위다. 수도도 둘로 쪼갠 판이다. 방송·통신의 융합은 기술의 융합이지 꼭 정부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시스템 비판보다 개별 검증에 주력 새정부 국정철학 실제분석도 미흡

부처의 융합이 아니다.

“총체적 인사난맥 박 대통령 책임”

중앙은 23일 ‘총체적 부실인사에서 박대통령이 배울 것’ 사설에서 “출발은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인사는 만사지만 망사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도 “박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면 이의를 달기 어려운 분위기가 검증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폐쇄적 독선적 스타일이 사안의 본질이라는 지적도 많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또 “한 달 이상 계속된 인사의 총체적 난맥상은 박 대통령 책임이다. ‘나홀로 수첩 인사’란 얘기가 공공연하다. 인사 스타일과 인사 시스템을 뿌리부터 점검해 문제가 더 쌓이기 전에 인사 참사가 이어지는 근본 원인을 뿌리 뽑는 게 좋다”라고 지적했다. 신문들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중앙은 “그는 수많은 대기업의 이익을 법정에서 변호해 왔다. 공정위원장은 로펌 출신의 비전문가 변호사가 앉을 자리가 아니다”, 동아는 “공정위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조직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그를 발탁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

으나 측근 인사라는 인상이 짙다”고 썼다.

박대통령이 첫 각의에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인사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한 데 대해 신문들은 ‘코드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새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와 유관

않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책임을 미뤘다. ‘철밥통’ 공공기관 인사의 적정성 판단이 전적으로 국민 몫은 아니다.

한편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취임사에서 대북지원을 언급한 데 대해 찬반이 엇갈렸다. 문화일보는 ‘북의 핵 불바다 협박 속에 대북지원 꺼내는 통일부장관’ 사설에서 “북한이 이미 비핵화 선언, 정전협정, 남북 불가침 협정 등 중요한 약속들을 모조리 파괴하거나, 파기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남북 간 합의를 계속 준수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는 행태와 다르다. 10·4선언은 천문학적 규모의 대북 퍼주기 약속임은 물론 서해 NLL무력화로 연결될 내용들이다. 류 장관의 발언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13일 ‘북한 위협엔 단호히, 신뢰프로세스는 살려야’ 사설에서 “아무리 상황이 엄중해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은 귀 기울일 만하다. 핵 불바다 위협 속에 웬 유화 제스처냐는 비판도 있지만 전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바른 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북의 위협에 결코 굴하지 않으면서 대화와 신뢰구축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야말로 지금 박근혜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라며 다른 시각을 보였다.

사이버테러 경각심 촉구

대화 유지가 말은 쉽지만 위협과 신뢰는 공존이 지난하다. 그간의 지원과 대화가 북의 핵무장과 양동작전에 악용되었음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논리다. 한편 한겨레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공격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 (국방부 대변인)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성숙한 언어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월20일 KBS, MBC, YTN, 신한은행, 농협 등의 방송과 금융 전산망이 마비된 데 대해 ‘사이버 테러 당한 한국, 더 큰 공격 대비해야(조선)’, ‘사이버 테러에 맞설 철옹성 구축해야(동아)’, ‘사이버 공격,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응하라(중앙)’, ‘제2, 제3의 사이버테러 철저히 대비해야(한국)’ 라는 사설들이 경각심과 대책을 촉구했다. [4]

본회 산악회 시산제 대성황

대한언론인회산악회는 지난 3월 22일 북한산 향로봉 기슭에 제단을 차리고 지난 한해의 무사 산행을 감사드리며 올 한해에도 무탈한 산행을 기원하는 2013년도 시산제 행사를 가졌다.

이날 시산제에는 대한언론인회 회원기 회장과 지용우 고문을 비롯해 26명의 회우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상호 산악회 부회장(본회 사이버위원장)의 집전으로 진행된 이날 시산제는 초한관 정운종 산악회 회장의 헌작, 안평선 산악회 자문위원의 독촉 순으로 이어졌다.

시산제후 회우들은 가볍게 산행을 마치고 인근 통나무집에서 한방오리고기 정식을 들며 총회 행사도 가졌다.

이날 강진형(이하 존칭생략·가나다순) 김백산 김세경 김연일 김영호 안종우 이병대 이상호 이승규 이태영 장 옥 정운종 최귀조 홍원기 회우는 금일봉을, 황귀근 회우는 막걸리 등을 잔조했다. [4]



정운종 산악회장이 초한관으로 술잔을 올리고 있다.

가능성의 릴레이 **SK telecom**

SK텔레콤 LTE, 대한민국 1위를 넘어 세계 최고 LTE로 인정받았습니다

2천7백만 SK텔레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택해주신 마음에 보답하고자 늘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LTE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경쟁 했기에, 세계 최고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 덕분입니다. ICT강국 대한민국 덕분입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Global Mobile Awards 2013 '최고의 LTE 공헌상' 수상
Mobile World Congress 2013 'GSMA 의장상' 수상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는 전세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모임인 GSMA에서 선정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IT상입니다



LTE 국가고객만족도 1위
대한민국 최초 16년 연속 1위(이동통신부문)

‘공영 방송 장악’ 속셈 드러낸 정치권

새 정부 정책목표 방향잃어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았던 방송 업무의 귀속 문제가 힘겹게, 그렇지만 씩 합리적이지 못한 채 여야 합의로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장관급 위원장이 24일 지명됐고 진통 끝에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가 구성됐다.

당초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을 목표로 했던 뉴미디어업무가 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방송(IPTV)의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되 허가, 재허가, 변경 법안의 제정, 재개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뉴미디어 업무가 두 개 부처의 관장에 속하게 됐다.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갖고 방송용 주파수는 전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배분하는데다 신규 주파수와 회수 주파수의 배정은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에서 행사하도록 해 주파수 배정이란 같은 업무가 삼분되는 기형 구조가 됐다.

새 정부 출범 후 장기간 내각 구성조차 못한 데 대한 초조함에 쫓겨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타협과 양보란 이름으로 방송통신 산업의 진흥을 통한 새 정부의 경제 발전과 미래 산업 발전이란 정책 목표를 잃게 됐다는 평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와 반대로 정치적 승리를 거머쥔 듯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켰다고 야당이 주장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방송에 대한 야권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속내를 감추면서 정부 구성에 대한 발목잡기였던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의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한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국회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못 박은 것이나 궁극적으로 2인의 야당 위원에 참가하는 5인의 합의제 중앙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유선방송의 주파수 배정과 허가 업무 등을 끝까지 붙들어 둔 것이 국민들에게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움켜쥐려는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미 지적인 바 있지만 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방송 종사자들의 투철한 직업윤리와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특히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치권이 문제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방송통신의 산업적 역할에 보다 큰 의미를 둔 새 정부는 독임제 행정 기구에서 방송정책을 다루겠다면서 미래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주요 동력이 될 통신과 방송 산업의 융합을 통한 효율성을 내세웠지만 효율성은 영향력 확대라는 이름에 다름 아니라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해 끝까지 싸워 승리했다는 민주당의 경우 앞서 말한 대로 야당이 추천한 2명의 위원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5인제 합의기구에서 방송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놓지 않겠다는 속내라고 생각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국민들의 우려일 것이다.

노조-시민단체 극한투쟁 고쳐야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정부가 과거 인사, 운영 등 방송 업무에 여러 가지

방 송 시 평



오건환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총국장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기도 힘들 만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명 후 임명 과정에서 이른바 공인의 자격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못 이겨 자진 사퇴해 본인으로서의 최고위 공직에 오른다는 명예와 금지가 여지없이 짓밟히는 망신만 당하는 모양이 됐다. 차제에 우리가 미디어에서 많이 쓰는 ‘공인’이란 말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앞에 예를 든 정부 각료와 차관 등은 틀림없는 공인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디어, 특히 방송에서 조금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나

름을 붙였고 대학야구 선수단 감독과 프로구단 관계자, 학부모가 얹힌 선수 부정 입학 사건, 나아가 이른바 ‘국민 MC’의 한 사람인 김용만씨 등도 하나 같이 “국민의 사랑받는 공인으로서...” 운운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거나 자속을 약속하곤 했다.

‘국민 여배우’ 등도 거슬러

여자 탤런트들이 무더기로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부인하며 역시 “공인으로서...”를 입에 달았다. 이를 바라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심히 곤혹스럽다. 공인이란 말은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따라서 공인이란 말에는 잘못을 했을 때 일반 시민보다 더욱 엄격하게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도덕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공적 의무와 명예와 금지를 내포하고 나아가 존경을 받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엄격하게 쓰여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공적 업무를 맡아 하는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한정해 씌어서 당사자가 공적 의무를 엄격하게 수행하고 명예와 금지를 지켜나가도록 해야 하고 이 말을 듣는 국민도 함께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받는 인기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공인으로...” 운운 하면서 잘못을 빌거나 용서를 구함으로써 공인이란 말을 부정적 의미로 쓰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한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라는 말만으로도 그들이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바른 생활과 바른 생각을 지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겉돌며 지적하기는 했지만 톡하면 인기인 이름 앞에 국민이란 수식어를 쓰는 일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국민 여배우, 국민 여동생, 국민 MC... 물론 인기와 해당 분야에서의 뛰어난 능력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지만 진짜 국민들은 정치권이 나 시민단체 노조 등에서 들먹이는 국민이란 말만으로도 과식해 복통이 일어날 지경이다. 연예, 오락, 스포츠 프로그램 등에서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객관적 사실에 충실해야 할 보도나 시사 교양, 해설 프로그램에 이런 정확하지 않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공인이란 말이 잘못 쓰이고 있듯이 방송 용어에서 부적절하거나 잘 못 쓰이는 용례를 찾아 내 고치고 올바른 말로 대체하거나 더 아름다운 방송 용어를 발굴해 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우선은 일차적으로 현존하는 심의를 통해 걸러내고 과장되거나 혼란스런 용어는 광범위한 공적,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올바른 방송용어를 쓸 수 있도록 학계와 방송계, 관계 기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정확하고 아름답고 품위 있는 방송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K]

주파수 배정업무 3분된 기형 구조 방송 종사자 직업윤리 확립이 관건

형태로 영향력을 미친 데 대해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큰 틀에서 방송,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일반행정 기구가 아닌 독립된 방송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이고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란 흐름에 따라 다시 지난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 시절을 거쳤던 것이다. 이제 다시 방송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기구 변화가 왔지만 어떤 제도도 완벽함이란 있을 수 없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운용에서 방송의 독립과 공공성을 살리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하다면 투쟁도 해야 한다. 정부는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과거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고 야당은 합리적인 감시와 비판으로 방송이 내부적 통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하면 방송사 노조나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서 미주알고주알 방송 내용이나 인사 문제 등을 두고 극한적 투쟁을 벌이는 것은 결코 진정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려는 것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정한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자세로 돌아서야 할 것이다. 차제에 방송 종사자들은 다시 한 번 투철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공공성을 지켜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굳건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부적절한 방송용어 난무

이번 새 정부 구성 과정에서 우리는 ‘공인’이란 개념에서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경험을 수도 없이 하게 됐다. 총리 후보에서부터 장관, 차관에 이르기까지 공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시비로 중도 하차한 예를 손꼽

연예인, 운동선수 등에게 공인이란 이름을 붙여 줘 민망스런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원래 방송이 사람들의 이름 앞을 그럴듯하게 꾸며주는데 너그러운 때문인지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 한두 번 출연해 얼굴을 알리면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나 시청자의 동의도 없이 평론가란 이름을 붙여 주는 것이 요즘의 추세임을 지적한 바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 각계 평론가의 말이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방송 프로그램의 격을 높이려는 알파한 속셈에 지나지 않고 해당자는 여기 저기 채널에 얼굴을 내밀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다.

이런 추세이다 보니 연예인, 운동선수 등 인기인들 스스로도 방송이 붙여주는 공인이란 말에 스스로 갇혀 지내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들이 공인이라고 불리거나 스스로 공인을 자처할 때는 공인이란 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여서 거북하다. 최근 들어 서만도 탤런트 박시후씨가 여자 연예인 지망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당하자 방송 카메라 앞에서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은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인임을 자처했다. 더구나 100여 개의 미용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미용사 박준씨도 비서 등으로부터 비슷한 혐의로 고소당해 기소되자 “사회적 공인으로 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기 미용사이자 기업인일 뿐이다.

또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항상 우승 기대주로 여기는 감독 중의 한 사람인 프로 농구 감독이 부정 스포츠 도박에 관련 되어 문제가 됐을 때에도 방송은 예외 없이 공인이란 이

IBK홍보대사
송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정형준님

IBK예금고객
박성숙님

IBK홍보대사
김유빈

IBK기업은행!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이라는 이름에
「기업」이란 글자가 들어 있어,

아직도
기업은행을 「기업」만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닌데, 참! 안타깝습니다.

학생, 주부, 군인, 근로자, 회사원 등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서비스

氣功과 예술 접합 ... 팔순 넘어 펼쳐

“기공서화를 아시나요?”

서울 인사동 사거리에 위치한 라 메르(LA MER) 갤러리. 1층 전시관 벽면에 빼곡하게 걸린 50점의 작품들은 난해하다. 수묵담채나 채색화의 한국화가 아니다. 수채화와 풍경화, 회화와도 거리가 멀다. 채색만 다를 뿐 굵고 가는 무수한 선들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겹친 화폭은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몽환의 세계 같다.

서화부문도 다양하다. 노송을 모티브로 삼은 문인화(文人畫), 붉은 매화에 그려놓은 갑골문 ‘매개오복도(梅開五福圖)’는 얼치기 감상자도 약간은 다가오는 느낌이다. ‘반야심경(般若心經)’은 바람에 휘날리는 듯한 초서체다. ‘10년간 숲속에서 도를 닦아도 깨닫지 못했는데, 강변에 나오니 웃음이 절로 나와 도를 깨달았다’는 의미의 선구(禪句) ‘임하10년몽 호변일소신(林下十年夢 湖邊一笑新)’도 갑골문자다. ‘湖’字와 ‘一’字만 겨우 판독할 수준이니 미적 감각이나 작가 세계를 이해 한다는 건 연감생심이다.

‘기공서화(氣功書畫) 작품전’의 주인공인 본회 一湖 文俊徹(82) 원로회우를 지난달 8일 라 메르 갤러리에서 만났다.

-그림이 무척 난해 합니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며 상상의 날개를 펼치다보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화폭에 담은 것이지요.”

-작품 속에 기(氣)를 불어 넣었다는 의미인가요?

“기의 흐름을 명상하며 상상 속에 그려지는 기의 움직임을 표현한 것이죠. 오랫동안 컬러 테라피(Coloa Therapy)식의 원색 바탕에 혼색법(混色法)을 활용하여 독창적인 작품 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신필공 효시는 현종 때 허목

-보통 사람도 작품을 보며 氣를 느낄 수 있는지요?

“일반인의 염파수(念波數)는 20~50 헤르츠(Hz)라고 합니다. 염파수가 500Hz는 돼야 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제 작품에서 방출되는 기장(氣場)은 50~300m로 기공을 하는 사람들은 이층에 걸어 놓은 작품의 기를 아래층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바르게 가다듬고 작품에 몰입하면 치유의 효과도 있다고 한다.

문 준철 회우는 ‘중국 금강선 신필공 4대 전인(中國 金剛禪 神筆功 4代 傳人)’이다. 그의 사부(師父) 성학연(盛鶴延)대사(신필공 3대 전인)는 ‘문 선생의 서법은 그 힘이 단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신필공(神筆功)임을 단언한다’고 했다는 것. 신필공은 일종의 기공인 동시에 예술이며 무술의 소지도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신필공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신지요?

“1662년(현종 3년) 삼척부사 허목(許穆)이 신필공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은 바다의 조수(潮水)가 심해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했는데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57)

회우초대석

文俊徹

인터뷰 : 글 = 이규섭 (본)

허목 부사가 부임하여 ‘동해송(東海訟)’이라는 222자의 글을 지어 전서체(篆書體)로 써서 비석(碑石)을 세운 뒤부터 조수 피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신필공의 효시인 셈이지요”

허목 부사는 시서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명필로 전서체는 동방에서 제1인 자라는 평을 들었다. 삼척시 정상동(정라진 육향산정)에 위치한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7호로 지정되었다. 척주동해비가 재앙을 물리친다는 신통력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탁본을 해가는 바람에 비문의 손상을 우려하여 삼척시는 탁본한 비문을 인쇄하여 기증하거나 판매한다. 문 회우도 “2만원을 주고 탁본을 구입했다”고 한다.

“그림에서 氣에너지 느껴”

다우징 스쿨 원장이자 ‘한국기에너지연구회’崔海運 회장은 문 회우의 그림을 감명하면서 “강한



문 준철 회우가 지난 3월 인사동 라 메르 갤러리에서 작품전시회를 열

경제지 요직 거쳐 재계 진출 ... 증권 문제 다룬 칼럼 50대부터 기공생활 ... 중국 神筆功 4대 傳人 ... “나

기 에너지가 발생하여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작품”이라고 인증했다. 한국미술협회 조강훈 이사장은 “깊은 사색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오함과 깊은 울림은 한 차원 높은 경지에 있음을 보여주었다”면서 “진공상태와 같은 분위기에서 수억 광년에 걸쳐 날아오는 가느다란 빛처럼 선들을 중첩시켜 보는 이로 하여금 시공을 초월한 공간으로 빠져들게 만든다.”고 평가한다. 종로미술협회 윤평상 회장은 “환상적이면서도 힘이 넘치는 대단한 필력의 작품”이라고 강조.

문 회우는 제10회 서울서예대전 특선(2005년)을 비롯하여 세계서법문화예술대전 우수상(2006년), 일본 산경(産經)국제서전 입선 3회(2006~2009년), 제17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우수상, 입선(서양화 2011년) 등 수상경력이 화려하다.

-전시회를 열면 경비도 만만찮을 텐데요?

“대관료와 도록 제작비 등 2000만원

가까이 들었어요. 전시회 첫날 작품 7편이 예약 됐고, 전시회가 끝나면 경비는 충분히 빠질 것 같아요. 많은 관람자들이 ‘기적 같다’고 격려하고 평가해주 힘이 난다”고 한다.

-언제부터 서화에 정진하셨는지요?

“50대부터 기공생활을 시작했고, 퇴직 후인 60대에 본격적으로 서화에 몰두했습니다. 그동안 만들어 낸 작품 일부를 모아 이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작품 한 편을 완성하려면 원색을 넣고 그 위에 혼색



명상하며 떠오르는 기의 이미지를 표현한 ‘기공서화’ 전시회.

을 하는 등 7시간 넘게 서서 버텨야 하는 고된 작업이라고 한다. “기공과 서화에 몰두하면서 외부로부터 거의 단절된 호중(壺中)생활을 해왔다”고 덧붙인다.

신 신비의 서화전

· 전 내외경제 편집국장
· 전 제일경제 주필
· 서화가

본 편집위원·칼럼니스트 사진 =이철영 (본보 편집위원)



별었다.

집 국내 첫 출간 “이 잇고 살아요”



-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기 호흡입니다. 혈과 맥이 필요로 하는 정신적 에너지도 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지요. 기의 기본은 명상과 단련입니다. 명상을 통해 정신을 맑게 하고, 단(丹)은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 회우의 역저(譯著) ‘嚴新 氣功學 텍스트(1990년 출간)’ 머리글에는 ‘엄신 선생은 근래에 나타난 젊고 지식교양이 높은 기공사’라고 소개하면서 ‘엄신 기공은 신체를 단련하여 에너지를 발산시켜 현대의학으로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수많은 기공인들의 필독서가 되었다고 한다.

경제칼럼 첫 집필 재계 등 반향

-신문기자가 된 것은?

“1957년 고려대학교(전 국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면서 산업경제신문사

경제부 기자로 언론계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산업경제에서 경제부장과 부국장을 지낸 문 회우는 1972년 일간 내외경제 경제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산업경제신문은 1973년 소유권이 한국무역협회로 넘어가면서 제호가 내외경제신문으로 바뀌었다. 내외경제에서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1980년 11월 언론기관통폐합 직전에 퇴직했다. 이듬해 원풍섬유 부사장으로 재계에 몸담았다. 1990년 제일경제신문 주필 겸 부사장으로 복귀했다가 1994년 언론계를 떠났다.

-언론현장서 근무하며 기억에 남는 것은?

“산업경제 부장 시절 경제칼럼을 연재하여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게 기억에 납니다. 재계(財界)와 관계(官界)는 물론 언론계 선후배들도 칼럼이 나오면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어 보람을 느꼈지요”

-칼럼을 묶어 1973년 ‘適期失期’ 책으로 펴냈군요.

“표제는 본회 원로회우였던 고(故) 문인석 선생이 붙여주었어요.” 宋大淳 대한증권협회장은 서문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칼럼이 책으로 나왔지만 재정, 금융, 증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폭넓은 지식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증권문제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개선점을 명확히 제시한 지도적 시사평론’이라고 기술했다. 金定奎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비뚤어진 시장운영면을 신랄히 지탄하기도 했고, 올바른 주식시장의 체제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 금융면에 걸쳐 폭넓은 논평을 가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지침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사 재직시절 주로 일본 서적을 많이 읽었다는 문 회우는 일본 원서 단행본 350여 권과 백과사전 1집 25권을 한국증권거래소에 기증하여 감사패를 받았다. ‘천리(天理)에 따라 바르게 살자,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살자’는 좌우명의 실천이다. 그는 지금도 서예와 미술 관련 서적 등 500여권을 소장한 장서가이다.

-경제지에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소개했다면서요.

“내외경제 편집국장 시절 경제지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 독자의 정서함양과 읽을거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기획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원로 서예가들을 소개하면서 작품을 과감하게 편집하고 좌우명을 곁들여 서예에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의 시리즈 기획물을 본 한 서예가는 “문 선생이야말로 서예계의 숨은 공로자”라면서 “소개된 서예가 중에는 스승도 있고 그 스승을 지도한 소전(素筌)선생도 있는데, 이제는 대부분 고인이 되고 그분들의 작품만 남았다”고 회고했다.

이밖에도 ‘요가교실’을 지면에 개설하여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한국요가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기 수련과 요가로 건강관리”

-지면에 얹힌 이야기 말고 일화는?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⑭

비타민C의 효능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비타민C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드는 비타민 가운데 하나이다. 비타민C가 항산화(抗酸化) 물질 중 하나로 항암(抗癌) 효과에서 감기 · 동맥경화 · 류머티즘 등을 예방해주고 피부 특히 잇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비타민C가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영국의 젊은 해군 병사들이 아프리카로 항해를 시작한 지 수개월 만에 죽어 갔다. 원인은 비타민C 결핍에서 오는 괴혈병. 식사는 제대로 하였지만 싱싱한 채소나 과일을 먹지 못해 비타민C 결핍에 빠진 탓이다. 죽어가는 병사들에게 레몬즙을 먹게 하였더니 모두 살아났다.

비타민C가 다시 우리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미국물리화학자 폴링(Linus Carl Pauling)이 1976년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이 진행성 암환자의 생존을 높인다고 발표한 후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의대 이왕재 교수가 2000년 모 방송국 아침 프로그램에 나가 자신의 부친과 장인·장모의 당뇨병과 동맥경화를 고용량 비타민C 요법으로 완치했다고 예찬함으로써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하루 2,000~10,000mg을 복용할 것을 권했다.

이따라 서울의대 출신인 미국 인대 애나대학교 하병근 교수가 그의 저서

‘비타민C 면역의 비밀’, ‘비타민C 항암의 비밀’ ‘비타민C가 암을 죽인다.’ 등을 통해 암 치료는 물론 나이보다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비타민C를 장복하는 것이라 하여 한껏 불을 질렀다.

그러나 약학과 의학 및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같은 비타민C에 대한 주장에 대해 아직 입증된 바가 없다고 말한다. WHO는 2004년 고용량 비타민C 복용은 장(腸)과 비뇨기계에서 대사산물 때문에 잠재적 독성이 있으므로 1,000mg 이상 섭취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과량 복용할 경우 사람에 따라 복부 팽만감, 복통, 구토, 설사 등 위장관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다.

아스코르빈산이라고도 불리는 비타민C는 인체의 기능과 건강 유지를 위한 미량 원소 중의 하나로 자유기(free radical)에 의한 세포손상을 방지해 주는 것은 맞지만 이는 결핍이 되었을 때 문제이지 하루 권장량을 채우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WHO는 하루 권장량을 성인 45mg, 임신여성 55mg, 수유여성 120mg으로 하고 최대 상한섭취량을 2,000mg으로 제한하였다. 비타민C는 피망, 키위, 파프리카, 고춧잎, 딸기, 레몬, 시금치, 연근, 브로콜리, 감귤 등에 많이 들어 있다. [4]

“산업경제신문 평가자 시절, 모 부장이 자기가 쓴 기사를 뺏다며 편집국장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는 걸 보고 부아가 치솟아 그 부장을 때렸어요.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성격 탓이지요. 결국 상사 폭행으로 감봉처분을 받았고, ‘부장을 두들겨 댄 기자’라는 소문이 언론계에 나돌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문 회우는 작고 다부진 체격에 간간해 보인다. 6·25 때 생사를 넘나드는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 참전하여 수많은 전우가 전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고 다혈질적으로 성격이 변했다고 한다.

그는 군산중학교 5학년 때인 1950년 7월 자원입대하여 다부동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이듬해 1월 전역했다.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다부동 전투에 참전한 본회 지용우 논설고문을 아느냐”고 물었다. “지 고문이 서울지역서 참전했으면 모른다”고 한다. 당시 군산중학교 재학 중 참전했던 학우 97명이 전사하고, 3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6·25참전언론인회 회원인 그는 “올해 발행 예정인 ‘6·25 참전 수기’에 원고를 넘겼다”고 한다.

-건강관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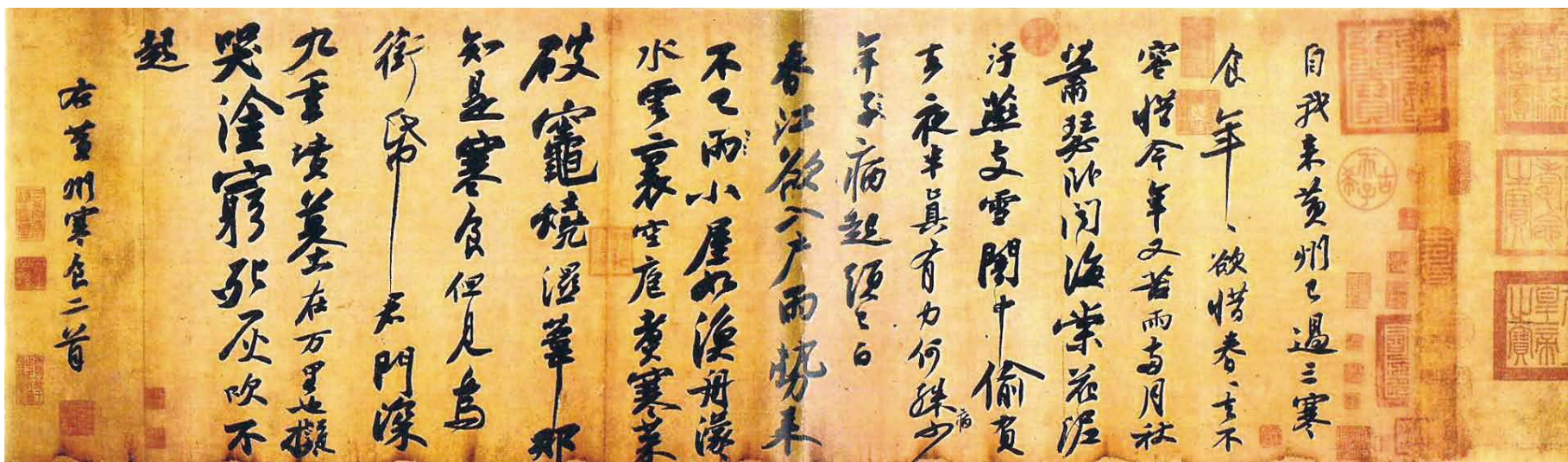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어요. 요즘도 아침 5시 전후면 일어나 기공수련과 요가를 3시간 정도 합니다. 아침 식사 후 작품을 구상하거나 화폭에 담는 일을 하지요. 가끔 청계산 산책과 인사동 나들이를 하는 정도지요”

-술과 담배는?

“신문기자 시절엔 술과 담배를 많이 했어요. 편집국장 시절 기자들이 제작거부를 하자 보안 당국에서 ‘내외경제에서 그럴 수 있느냐’는 시달림을 많이 받았어요. 언론통폐합을 앞두고 스트레스와 과로가 겹쳐 입원했더니 심근경색이란 진단을 받았고 그 때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100세 장수시대라지만 팔순에도 나이를 잊고 기수련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서예와 그림을 그리며 작품전을 연 문준철 회우는 ‘실버 파이팅’이라는 말이 잘 어울린다.

50년 전 중매로 만나 보름 만에 결혼한 부인 李香林 여사(75) 사이에 1남 2녀. 아들 영주(49)씨는 외식업체 MPK 대표. 딸 恩宣씨는 인천서 피아노학원 운영, 막내 딸 貞允씨는 프랑스 거주. [4]



소동파의 한식첩 2수.

寒食 이야기

절기(節氣)로서의 청명(淸明)과 습속(習俗)으로서의 한식(寒食)은 대개 하루 사이로 청명이 앞서 있으므로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라는 속언(俗言)이 우리말 사전에 올라 있지만 올해는 청명과 한식이 양력 4월5일(음력2월24일)에 겹쳐 있다. 그런데 청명은 절기라서 달력에 올라있지만 한식은 절기로서의 뜻보다는 습속으로서 전해 오는것인데 그날이 한식이라고 해서 찬찬에 식은밥 먹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원래 중국의 습속이 흘러온 것이고 보면 형해화(形骸化)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한식은 성묘(省墓)하는 날로서 달력에 올라있다고 보아야 할텐데 장례(葬禮)가 화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으므로 성묘 습속으로서의 한식의 여맥(餘脈)도 점차 사그러져가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쨌거나 한식의 내력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나 십팔사략(十八史略)에만 올라있는 이야기라서 모를 사람이 많을 것이나 나는 한식날에 더러 소동파(蘇東坡)의 한식시권(寒食詩卷)의 붓글씨를 임모(臨摹· 옆에 두고 베껴쓰) 하는 터라서, 그리고 자주 사기나 십팔사략을 읽으므로 한식하면 아는 척 하게 된다.

중국 춘추(春秋)시대 진(晉·265~420) 나라 공자(公子) 중이(重耳)는 아버지 헌공(獻公)의 애첩 여희(驪姬)의 책략에 걸려 사지(死地)에 몰리자 모국을 탈출하여 유랑길에 오르는데 그 때 중이를 따라 나선 다섯 심복중에 한식의 주인공인 개자추(介子推)가 들어 있다. 성은 개(介) 이름은 추(推)다.

공자 중이는 전후 19년에 걸친 유랑생활 끝에 진(秦)나라 무공(繆公)의 도움으로 환국하여 권좌에 앉는다. 문공(文公)이다. 문공이 춘추오패(春秋五霸)중의 한사람이 되는 사적(事蹟)은 춘추좌전(春秋左傳)에 상당한 분량으로 실려있다.

진나라의 주인이 된 문공은 권좌에



권도홍

- 보훈 원로회우
-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 전 주부생활 부사장

앉아 유랑 19년을 함께 한 다섯 심복중 네사람에게 논공행상으로 합당한 자리를 주었으나 정성을 다해 주군(主君)을 받든 개자추만 행상에서 빠진다. 기록으로는 다섯 심복중의 한사람인 중이의 외삼촌이 막판에 논공을 따져 조카와 다투는걸 본 개자추가 정나미가 떨어져서 그랬는지 스스로 자취를 감춰버린 것으로 되어

있다.

개자추는 노모와 더불어 면산(綿山)에 숨어 버렸는데 개자추의 종자(從者)가 궁문(宮門)에 요즘말로 대자보(大字報)를 써붙였다. 자기의 주인인 개자추만 논공행상에서 빠진 일은 잘못이라는 요지(要旨)다.

『드센 용이 있을 자리를 잃자, 다섯 마리 뱀(신하)이 따르며 천하를 떠돌때 용이 주리거늘 뱀 한 마리가 자기의 허벅지 살을 베어 먹었다. 용이 본디 있던 소(淵), 곧 궁궐로 돌아와 그 터전을 찾고 네 마리 뱀은 모두 처소를 얻었으나 뱀한마리(개자추)만 거처를 못얻고 별관에서 우네』(有龍矯矯, 頃失其所 五蛇從之, 周流天下. 龍饑之食, 一蛇割股 龍返於淵. 安其壤土 四蛇入穴. 皆有處處. 一蛇無穴, 號于中野)

이를 본 문공이 잘못을 깨닫고 사람을 보내어 개자추를 찾았으나 개자추가 나오지 않으므로 면산에 불을 지르니 개자추는 노모와 함께 나무를 안고 타죽어(抱木而死)버렸다. 이에 문공은 면산 일대를 개자추의 영지(領地)로 봉(封)하고 그땅을 개산(介山)으로 이름하여 개자추의 억울한 넋을 달랬으며 한달동안 불을 금함으로써 한식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금화(禁火) 한달에 냉증으로 앓는 백성이 속출하자 개산 일대를 다 스리던 주거(周舉)라는 벼슬아치 목(牧)이 글을 지어 개자추의 명복을 빌고 금화 한달을 사흘로 고쳤다고 한다. 한식날에 성묘가 시작된 것은 당의 개원(開元· 玄宗때의 연호)부터다.

x x x x

소동파 붓글씨중 첫째로 꼽히는 한식첩은 종이에 쓴것인데 세로 34.2cm 가로 189cm 크기다. 한식첩 2 수의 뜻풀이는 이렇다.

기1 (其一)

自我來黃州 내가 황주에 온지
已過三寒食 이미 세 번 한식을 지내고
年年欲惜春 해마다 봄을 사랑하려하나
春去不容惜 봄은 가버리고 아낄수가 없네
今年又苦雨 올해도 또 굶은비 내리고
兩月秋蕭瑟 두달동안 가을처럼 쓸쓸하다
臥聞海棠花 누워서 듣는 해당화의
泥汗燕脂雪 눈처럼 흰빛도 연지같은 다홍빛도 덧없이 진흙 투성이가 됨을...
暗中偷負去 어둠속에 몰래 업고 사라지는(봄을)
夜半眞有力 한밤중에 힘센 사내가 있네.
何殊病少年 이를테면 앓던 젊은이가
病起頭已白 일어나보니 머리가 이미 희게 되었음을

기2 (其二)

春江欲入戶 봄날의 강물이 불어 문으로 들려하는데
雨勢來不已빗줄기는 그치지 않고
小屋如漁舟 오두막이 마치 고깃배 같네
濛濛水雲裏 자욱한 물과 구름사이 떠도는
空庖煮寒菜 썰렁한 부엌에서 변변찮은 푸성귀를 삶고
破竈燒濕草 부서진 부뚜막에 젖은 갈대를 지피니
那知是寒食 어찌 알라 이것이 한식임을
但見烏銜紙 단지 까마귀가 지전(紙錢)을 물고 나는 것을(한식날엔 들판에서 지전을 태운다) 보네
君門深九重 천자가 사는곳은 너무나 깊고
墳墓在萬里 조상의 무덤은 만리밖에 있어
也擬哭塗窮 내 삶의 궁함이 짝이없어 통곡하려 해도
死灰吹不起 식은 재처럼 불어도 다시 살지 않네



소동파 한식첩이 붙어있는 황산곡의 발문.

대만의 고궁(故宮)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급 서예 명품중에 『한식첩(寒食帖)』이 있다.

북송(北宋· 960~1127)때 최고의 문인으로 꼽히는 소동파(蘇東坡· 1036~1101)의 작품이다. 그의 이름은 식(軾)이다. 북송 원풍(元豐)5년(1082) 유배생

활을 보내던 장강(長江)북쪽 기슭의 황주(黃州)에서 세 번째 한식을 보내고 춘삼월 비내리는 그날, 허물어진 부뚜막에 젖은 갈대로 불을 지펴야 했던 궁벽한 생활을 자작시(自作詩)로 읊고,

15면으로 이어집니다

언론가 소식



조선일보 역사박물관 '뉴지엄' 개관

조선일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사진) 지난 3월 5일 서울 흑석동에 문을 연 '뉴지엄(Newseum·news와 museum을 합친 말)'은 조선일보의 발자취를 기록한 공간일 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직접 신문·TV·뉴미디어 제작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조선일보 역사기념관(502.5㎡)은 격동의 현대사와 신문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곳으로 조선일보 창간호, 역사 속으로 사라진 활자를 비롯한 수동식 취재 카메라와 원고지, 명논객들의 육필등 조선일보 자료들이 전시돼있다. 2층 미디어 체험관은 신문기자, 방송기자,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져있다. 이날 개관식에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 정몽준 새누리당의원,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문

용린 서울시 교육감, 대한언론인회 홍원기 회장,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송희영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일보 이상석사장 연임

한국일보는 지난 3월 29일 하오 열린 주주총회에서 박진열 부회장, 이상석사장, KT박무중 사장을 재선임했다.

서울경제 사옥 이전

서울경제신문(사장 김인영)과 코리아타임스(사장 박무중)는 지난 3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267번지 임광빌딩 본관 8층과 9층으로 사옥을 이전했다. 한편 소년한국일보(사장 문현식)는 1월 5일 서울 종로구 창경로 136 보령빌딩 10층으로 사옥을 이전했다.

연합뉴스 송현승 사장 선임



연합뉴스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송현승 현 연합인포맥스 특임이사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연합뉴스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송현승 사장은 1983년 연합

뉴스 전신인 연합통신에 입사한 뒤 연합뉴스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 부국장, 상무이사 등을 지냈다.

노컷뉴스 이정희사장 연임

CBS 노컷뉴스는 지난 3월29일 하오 3시 주주총회에서 이정희사장을 재선임했다.

변용식 신문윤리위 위원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3월 25일 제26

차 정기총회 및 제108차 이사회를 열고 변용식 조선일보 발행인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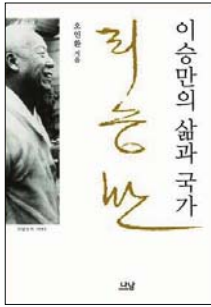
세종시 취재 환경 개선 방안 세미나

관훈클럽은 국무총리실등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이후의 현지 취재환경 실상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지난 3월 15일 '세종시 취재 보도 시스템 개선방안'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인환 전 장관 저서 '리승만 평전' 출간

오인환 전 공보처장관(74)이 지난 3월 27일 '이승만의 삶과 국가'(나남)를 펴냈다. 오인환 전 공보처 장관은 "우파는 이승만을 긍정하고 좌파는 끊임없이 폄하하는 좌우 역사 인식의 평행선만 이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이 책 출판의 동기를 밝힌바 있다.

오 전 장관은 1964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정치부장 등 주요 부장과 편집국장 그리고 주필로 28년간 언론계에 종사했다. 1992년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의 특보로 정계에 입문했고 1993년 2월 공보처 장관으로 입각해 YS퇴임 때까지 만 5년간 최장수 장관으로 일했다. 1998년 퇴임 후에는 한눈 팔지 않고 '역사 공부'에만 매진해왔다.

그는 "공직 생활 5년을 경험하며 리더십의 중요성에 눈뜨게 돼 역사 공부에 빠져들었다"고 말했다. 그 후 '조선 왕조에서 배우는 위기관리의 리더십' '고종시대의 리더십' 등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2013년 첫 사발단 원탁회의

경향신문

경향사우회(회장 김명수)는 지난 3월 4일 낮 12시 사우회 회의실에서 사우발전을 위한 원탁회의가 열렸다. 올 들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사우회보 48호 지면 평가와 49호 제작 방향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 하고 연말에 발행되는 50호는 기념특집호로 24면으로 증면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6월에 개최되는 정기총회 장소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사우들의 부음시 조기를 만들어 조의를 표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사발전방향 등이 논의 됐다.

한편 경향신문 사우회 OB산악회(회장 조명동)는 지난 3월 2일 북한산 향로봉 기슭에서 올해 안전산행을 지원하는 시산제 행사를 가졌다.

또한 시산제후 가진 정기총회에서 현

사우회 소식

조명동 회장을 재추대하는 한편 금년도 산행 계획 전반을 논의했다. 부회장 장옥(본회 회우), 감사 강병국, 총무 강남기, 산악대장 이충선 씨는 연임됐고 산악대장 2명중 한명은 유병현 사우가 맡았다.

동아리 활동 1,200여명 참여

동아일보

동아일보 사우회(회장 김광희)는 지난 3월 13일 11시 충정로 동우회 사무실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2년도 결산 및 총회 결과보고와 2013 봄철 임시총회 개최, 회보 발행, 동아리 활동 등 동우회 활성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동우회는 지난해 바둑, 서예, 산,

사이클, 사진클럽을 비롯 스마트폰 강의와 클래식 음악감상회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총 1,200여 명이 참여했다.

사우회보 제21호 발행

서울신문

서울신문 사우회(회장 김문진)는 지난 3월 18일 자로 서우회보 21호를 발행했다.

지난 3월 13일 있는 사우회 정기총회 소식을 비롯, 다양한 소식들이 실린 서우회보는 본회 신우식고문(서울신문사우회 상임고문)이 집필한 '그때 그 시절'(이번 호엔 서울신문 산악회 창립 당시의 비화가 실렸다)과 본회 이재원 회우의 '아름다운 노년의 하늘여행' 강연 요지가 돋보인다.

스마트폰 활용교육

중앙매스컴

중앙매스컴 사우회(회장 김재봉)는 지난해에 이어 4월 1일부터 1개월간 매주 월요일 오후 3~5시 까지 2시간씩 모두 5회에 걸쳐 사우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폰 활용교육을 다시 시작한다.

이번 교육은 KT의 IT스포터즈 서울 서부지역팀의 지원으로 실시된다.

'한우회보' 혁신호 발행

한국일보

한국일보 사우회(회장 제재형)는 지난 3월 사우회보(한우회보) 제9호를 발행했다. 제재형 사우회 회장 취임 후 처음 나온 이번 한우회보에는 제재형 회장(본회고문) 취임사, 한기호(본회 상담역), 김승웅(본회 회우), 이광영(본회 회우)씨의 글이 실렸다.

14면에서 이어집니다.

붓글씨로 남긴 한식첩 진적(眞跡)은 써서 남긴지 9백여년을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명품중의 명품이다. 한식첩의 정식이름은 『황주한식시권(黃州寒食詩卷)』인데 진적의 끄트머리엔 『우황주한식이수(右黃州寒食二首)』로 되어있다. 같은 주제의 시 2수를 잇달아 쓴것이다.

나는 소동파의 황주한식시권(2首)을 여러번 붓글씨로 써 보았으나 30년전 초대면(初對面)에 느꼈던 난감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한식시권 말고도 그의 매화절구(梅花絕句)를 써보았으나 역시 습득은 불가능하다. 그럴것이 소동파는 자기의 붓글씨에 대해 “나의 글씨는 내 뜻대로 쓰기로 본디 법이 없다(我書意造本無法)”고 했으니 그러면 나도 내 뜻대로 쓰보면 그의 글씨는

아득한 저쪽에 있다. 그러므로 소동파의 붓글씨는 배워서 익힐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인데 법도가 없고 방종하게만 보이는 그 글씨가 대만의 고궁 박물관에서 발행(2006년초판)한 『국보정화(國寶精華)』에 올라있고, 역시 고궁박물관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고궁문물(故宮文物)』 49호(1987년4월)의 특집면 제목은 『3년 한식을 보낸 황주에 비내리는데 단숨에 써내린 만고서(三年寒食黃州雨 一氣呵成萬古書)』. 만고서(萬古書)라니 이 이상의 찬사는 있을 수 없다.

한식첩 진적의 본문뒤에 붙어있는 황산곡(黃山谷·1045-1105)의 발문(跋文) 또한 격찬을 하고 있다. 황산곡의 이름은 정견(庭堅)이요, 자는 노직(魯直)이요, 호가 산곡도인(山谷道人)이다.

붓글씨로는 소동파 미불(米芾), 채양(蔡襄)과 더불어 송 4대가(四大家)의

한사람인데 그의 초서는 초성(草聖)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있다. 글씨 뿐만 아니라 소동파와 더불어 송시사(宋詩史)에 우뚝선 시인이라 흔히 소동파와 짝을 이루어 소황(蘇黃)으로 일컬어지는 천재적인 시인이다. 황산곡 발문(작은도판)의 대의(大義)는 이렇다.

『동파의 이 시는 이태백(李太白)을 닮았으나 오히려 태백도 미치지 못할까 싶다. 이 글씨는 안노공(顏魯公·眞卿이름) 양소사(楊少師·이름은凝式) 이서대(李西臺·이름은蜚)의 필의(筆意)이 되 만약 동파가 다시 써도 이에 미치지 못할까 싶다. 뒷날 소동파가 내 글(발문)을 읽는다면 부처없는 곳에서 제가 난척한다고 웃을 것이다.』

이것이 소동파의 한식첩과 함께 쌍벽으로 불리는 황산곡의 발문이다.

소동파가 자기의 붓글씨에 대해 “법이 없고 마음대로 쓴다”고 한 말은 오

해의 소지가 있으니 소식문집(蘇軾文集·전5권)을 읽어보면 자기는 선인(先人)들의 고법(古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을 알 수 있다. 붓을 들면 마음은 교졸(巧拙)을 떠나 삼매경에 빠진다는 것인데 그래서 “내 글씨는 비록 대단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새로운 경지가 나오므로 옛사람의 법대로 쓰지 않으니 이것이 또한 기분 좋은것”(吾書雖不甚佳, 然自出新意, 不踐古人, 是一快也)이라고 한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 말하기를 “글씨에는 반드시 신(神), 기(氣), 골(骨), 육(肉), 혈(血), 다섯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글씨가 되지 않는다”고 뜻을 박는다.

아무튼 한식이야기가 한식첩으로 옮겨와서 붓글씨 이야기가 무성하니 글이 두서없다 할것이나 늙으면 옛 이야기가 많거든! 

고대 - 현대 넘나든 이집트 - 두바이 여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사에 근무하는 딸의 주선으로 지난 2월 아내와 함께 2주간의 이집트 및 아랍에미리트연합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딸(김민정)은 에미레이트 항공사 직원으로 두바이 공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딸은 나와 아내(안수자)의 여행을 위해 여행스케줄을 짜고 여행지의 숙박업소에 전화 및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놓았다. 딸은 우리 부부의 관광안내를 위해 한달간의 특별휴가를 받았다.

2월 10일 오후 11시 55분 인천공항에서 에미레이트 항공을 타고 다음날 새벽 5시(현지시간) 두바이에 도착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아랍에미리트 연합 수도인 아부다비로 이동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모스크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 중 하나인 그랜드모스크를 구경했다. 이 사원은 특유의 둥근 지붕과 높은 첨탑을 자랑하며 아랍의 현대적 건축미를 가장 잘 살린 사원답게 웅장하고 우아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크고 작은 돔 지붕 82개를 갖춘 거대한 규모와 정교한 실내 장식으로 보는 이를 압도한다. 내부를 관람하려면 여성은 반드시 가리개인 히잡을 입고 가야 한다. 필자의 아내와 딸도 히잡을 걸친 후에 입장이 허락됐다. 현대에 와서 이슬람권에서도 여성들의 인권보호나 사회참여 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히잡을 비롯한 전통의상이 여성을 억압하는 수단이라 하여 착용하지 않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거리에서 만나는 여성은 예외 없이 히잡을 입고 다녔다.

오후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 수도 카이로 공항에 도착, 약 1시간 떨어진 숙소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 카이로 주변에는 수많은 아파트와 단독주택들을 짓고 있었다. 카이로 주변은 나일강변의 비옥한 땅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가 8,000만인 이집트는 국토넓이는 100여만평방미터로 우리나라의 약 5배에 달한다. 저녁식사는 사육비둘기요리를 하는 경양식집으로 갔다. 비교적 입맛에 맞았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700원어치의 빵을 샀다. 국내라면 7,000원어치는 족히 되는 것 같다.

12일 아침 6시에 기상. 기자고원에 최초로 들어선 쿠푸왕의 피라미드와 그의 아들 카프라왕의 피라미드, 그의 손자 멘카우레 피라미드를 구경했다. 기자고원에 최초로 들어선 쿠푸왕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147미터로 약 250만개의 거석으로 지어졌다.

카프라왕 피라미드의 바로 앞에 앉아 있는 몸길이가 74미터, 높이 20미터나 되는 웅장한 �핑크스상은 바위언덕을 통째로 깎아 사자의 몸과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신화적인 동물의 모양을 만들어 카프라왕의 지위와 지명도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곳에서 낙타를 탔다. 낙타를 처음 타본 필자는 서서히 가는데도 떨어질까 다소 불안했지만 얼마 안있어 자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글·사진 = 김용발 (본회 회우·메디팜헬스뉴스 발행인)



스핑크스상 앞에 부인, 딸과 함께 선 필자.



나일강 크루즈투어 관광객들에게 잡상인들이 카피트와 수건등을 사라고 외치고 있다.

잊지 못할 사막의 하룻밤

13일 카이로에서 약 6시간동안 버스를 타고 바하리아라는 곳에 도착했다. 사막투어를 하기 위해서였다. 사막운전에 노련한 가이드의 4륜구동지프에 올라탄 우리가족은 바하리아의 흑사막, 백사막, 크리스탈사막을 거쳐 광활한 사막에 버섯, 치킨, 너구리 등 각종 동물모양을 한 바위를 지나 땅거미가 질 무렵 낙타모양을 한 바위 옆에 텐트를 치고, 여장을 풀었다. 여우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연두빛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백사막에서의 하룻밤은 평생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사막에서 룩소르까지 가는데 무려 17시간이 걸렸다. 차가 고장 나 견인해서 고쳐야 했기 때문이다. 이집트인들은 내가 한국인라고 말하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굿이라고 한다. 상점에서는 삼성에서 만든 핸드폰, 도로에서는 현대, 기아에서 만든 자동차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집트인들은 착하고 친절할 것 같다. 그러나 공동화장실이나 숙박시설의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게다가 돈을 쥐여 용변을 볼 수 있다.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파리 떼도 많고 불결하다. 음식을 먹어도 메스꺼워 토할 것 같은 느낌이다.

15일 아침 5시 배를 타고 나일강가에 있는 열기구 타는 곳에 갔다. 행글라이더를 실제로 타보는 듯 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우리 일행 22명을 태운 열기구는 30분 동안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장, 야자수나무 위를 비행했다. 귀국한 후에 열기구가 폭발, 탑승객 20명 사망이라는 뉴스를 접했다. 필자가

탔던 곳에서 일어난 참사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오후 5시 아스완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탔다.

아부심벨신전을 구경했다. 아부심벨신전은 기원 전 13세기 하나의 돌을 깎아내어 건설한 두 개의 장엄한 신전으로 매우 유명하다. 이 신전들은 위대한 파라오 람세스 2세와 그의 아내 네페르타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나일강 크루즈 2박3일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의 쿠루즈 여행에 나섰다. 3인실의 방을 배정받았다. 침실과 화장실 등 모두가 깨끗하다. 선실 창밖으로는 길게 뻗어있는 야자수 나무들과 마을들이 보인다. 배가 중간에 정박할 때는 카페트와 스카프를 파는 상인들이 작은 돛단배를 타고 떼지어 와서 물건을 사라고 요구한다. 하나의 치열한 생존경쟁의 현장을 보는 것 같다.

룩소르 박물관, 룩소르 카르낙 아문 신전을 구경했다. 나일강을 마주한 박물관 주변에는 녹음이 우거져 있고 수많은 조각상과 부조들이 늘어서 있다. 신전은 약 1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10여개의 탐문이 20여채의 전당을 둘러싸고 있다.

19일 룩소르공항에서 다함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홍해의 해변가에 있는 다함은 깨끗하고 조용하다.

아침에 일어나 왕복10킬로미터의 해변가를 달렸다. 산호, 열대어 등 바닷속 경관을 구경하기 위해 스노클링 교육을 받았다. 평소 기초적인 수영실력을 갖추고 있기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잠수복과 구명조끼로 갈아입고 심

해 3백미터나 되는 바닷속의 경관을 구경했다. 산호초,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등 형형색색의 바닷 속의 경관은 참으로 아름답다. 한마디로 환상적이다. 이번 여행은 하고 싶은 것을 해보는 체험여행이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계명을 내려주었다는 시나이산의 일출을 보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2시간에 걸쳐 시나이산 입구인 성 캐서린 사원에 도착했다. 모세산이라고 불리는 시나이산은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없는 바위산으로 해발 2,285미터다. 일출을 보기 위한 야간산행에는 유럽, 중국, 한국 등 전 세계의 관광객이 찾아왔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다. 압둘라라는 이름의 가이드를 따라 정상까지 가는 데는 약 4시간 정도 걸렸다.

해가 오르기 전에 하늘의 구름이 온통 붉은 색으로 물든다. 정확히 새벽 6시 20분. 정상 맞은 편에 보이는 곳에서 솟아나는 해오름의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성스러운 봉우리로 불리는 시나이산에서의 일출구경을 끝으로 다함으로 다시 돌아와 하룻밤을 보냈다. 귀국길에 딸이 근무하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 들렀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연방으로 독립한 7개국 가운데 하나다.

한국건축기술 세계에 자랑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 건물 지하에 있는 세계최대의 두바이쇼핑몰에서 20분마다 펼쳐지는 분수 쇼를 보면서 저녁식사를 했다. 현대판 바벨탑으로 불리는 부르즈 칼리파는 162층의 건물로 삼성물산이 인공위성 3대를 이용한 측량을 도입해 오차를 5밀리미터로 줄이는 등 신기술과 신공법으로 시공해 한국의 건축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두바이여행을 마치고 22일 에미레이트 항공에 올라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시계는 23일 오후 4시를 가리켰다. 14일간의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 여행은 많은 볼거리와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여행이었다.

이와 함께 이집트여행은 많은 생각을 남겨주었다. 같은 아랍어를 사용하면서도 이집트는 두바이에 비해 매우 가난하다. 엄청난 규모의 피라미드, 신전, 유물 등 위대하고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후진국생활을 면하지 못할까.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위대한 정치지도자의 지혜스러운 영도력과 함께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끊임없이 개혁개방으로 나갈 때 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필자는 나름대로 생각해본다.

이 같은 해답은 석유고갈을 염두에 두고 금융 및 관광산업으로 두바이를 천지개벽한 셰이크 모하메드 두바이왕이나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빈곤한 생활을 하던 중국을 개방정책으로 이끌어 세계 2대 강국으로 만드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덩소펑, 그리고 우리나라를 가장 짧은 역사 속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여행의 안내를 위해 무척이나 고생을 한 딸 민정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싶다. ☞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충청남도

(350-831)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대표 전화 : 041-635-2000 / 대표 팩스 : 041-635-3000



溫故知新

4월에 왔다 간 김삿갓

오랜만에 영월 김삿갓의 묘와 집터를 찾았다. 풍류가객 김삿갓이 고달픈 방랑의 발길을 멈추고 영원히 잠든 김삿갓 묘역으로 오르는 길가에 수많은 김삿갓 시비와 기념비가 서 있고, 서낭당 한 채도 있다. 서낭당 앞에서 갈라진 오른쪽으로 오르면 이내 김삿갓 묘요, 왼쪽 산길로 계속 오르면 어둔리 선락골을 지나 선래골 김삿갓 일가가 살던 집터가 나온다.

올해로 방랑시인 김삿갓, 김병연(金炳淵)이 세상을 떠난 지 150주년이 된다. 김삿갓은 순조 7년(1807) 음력 3월 13일, 양력 4월 22일에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나 철종 14년(1863) 음력 3월 29일에 전라도 화순에서 죽었다. 죽장 짚고 미투리 신고 한평생을 떠돌아다닌 천재시인 김삿갓, 파격적 시풍(詩風), 예상을 뛰어넘는 기행(奇行)으로 가는 곳마다 전설을 남긴 김삿갓, 그는 행운유수처럼 이 땅의 산수와 저자 간을 마음대로 넘나든 자유인이었다.

김삿갓이 평생을 해학과 풍자로 방랑하던 풍류시인이며 기인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한 점 뜬 구름 같고 한줄기 바람 같았던 그의 기구하고 불행했던 한 삶의 자취를 똑똑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만큼 그의 일생은 널리 알려진 명성과는 달리 신비에 싸여 있어 강원도 영월 땅에 그의 일가가 숨어살던 집터가 있고, 김삿갓의 묘도 그 근처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불과 30년 전인 1982년 10월이었다.

이는 영월의 향토사학자였던 고 박영국(朴泳國)씨의 오랜 현장답사와 자료를 통한 연구의 결실이었다. 박씨는 1974년부터 김삿갓의 발자취를 추적하기 시작하여 1982년 10월에 마침내 영월군 하동면 와석1리 노루목에서 김삿갓의 묘와 선락골의 집터를 찾아냈을 뿐 아니라, 그 뒤 1994년 세상을 뜰 때까지 사재까지 털어가며 김삿갓 유적지 보존운동을 벌이고, 곳곳에 묻혀 있는 김삿갓의 미공개 시와 일화를 발굴해내는 데에 심혈을 쏟았다.

필자가 박씨와 함께 처음으로 김삿갓 묘와 집터를 답사한 것은 한국일보사 기자였던 1984년 여름이었다. 그때 이미 오래 전에 폐가가 되어버린 김삿갓의 집터에서 그의 어머니와 부인과 며느리 등 여인 3대가 눈물과 한숨을 섞어 곡식을 뺏았을 디딜방아를 발견하여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새롭다. 또 그날 영월군청에서 지프를 빌려 김삿갓 유적지를 찾아가는데, 너무나 산길이 험악해 머리에 흙이 여러 개 생겼던 것도 추억으로 남아 있다. 지금은 그때 길 같지도 않던 7km의 진입로가 매끈한 아스팔트 포장길로 변했고, 면소재지 이름은 하동면에서 김삿갓면으로, 골짜기 이름도 와석리계곡에서 김삿갓계곡으로 바뀌었으니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는 느낌이다. 김삿갓은 무슨 까닭에 방랑시인이 되어 고달픈 심신을 이끌고 이 땅의 산굽이며 물줄기를 이리저리 휘감아도는 풍류행에 나서게 되었을까.

순조 11년(1811), 흥경래난이 일어났을 때 김삿갓의 조부 김익순은 반

란군에게 항복하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더 살아보려다 영원히 욕된 이름을 남긴 셈이 되었다. 이듬해 봄, 난이 평정되자 김익순은 모반죄로 처형당하고 그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일가는 당대의 세도가문 안동 김씨 일족이라는 덕분에 부계·모계·처계 등 삼

쪽을 멸하는 화는 면했지만 역적의 자손이라 고향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다. 그때 김삿갓은 겨우 다섯 살짜리 철부지였다. 집안이 망하자 병하와 병연 형제는 김성수라는 종이 데리고 황해도 곡산으로 도망쳤고, 부모는 아우 병호를 데리고 경기도 광주로 도망쳐 숨어살았다.

2년 뒤 병하와 병연은 아버지가 보낸 사람을 따라 광주로 가서 가족이 다시 합쳐졌다. 아버지는 식솔을 이끌고 양평으로 들어갔는데, 병약하던 막내 병호가 죽어버렸다. 문중에서는 역적이 났으니 가문의 치욕이라면서 족보에서 지워 없앤다는 소리가 나왔고, 그런저런 이유로 쌓이고 쌓였던 수치심과 분노가 울화병이 되어 아버지마저 그만 39세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다. 병연이 일곱 살 때였다.

37세에 과부가 된 어머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경기도 가평을 거쳐 강원도 두메산골로 들어갔다. 평창 미탄에서 조금 살다가 다시 영월 삼옥리로 이사했다. 병하와 병연 형제가 장가를 든 곳이 바로 이곳이고, 김삿갓이 방랑을 떠난 곳도 바로 이 영월 땅이었다.

김삿갓은 어찌하여 방랑길에 나섰을까. 최근까지는 김삿갓이 21세 되던 해인 순조 27년(1827) 영월 동헌에서 열린 백일장에서 할아버지 김익순을 욕한 시를 지어 장원한 것이 가출·방랑의 계기라는 설이 정설처럼 굳어져왔다. 그날 시제(詩題)는 〈흥경래난 때 가산군수 정시(鄭蓍)의 충절사를 논하고 김익순의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한탄하라〉는 것이었다. 이날 장원은 삼옥리에 사는 가난한 선비 김병연이 차지했다. 병연이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자랑했지만 기뻐할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눈물을 펄펄 쏟으며 그동안 숨겨왔던 집안의 내력을 일러주는 것이었다. 병연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역적의 자손인데다 그 할아버지를 욕하는 시로 상까지 탔으니 어찌 하늘을 쳐다보며 살 수 있으랴. 그래서 삿갓으로 하늘을 가린 채 정처 없는 방랑길에 나섰



황원갑

·본회 전문위원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 비상한 천재였던 김병연이 나이 스물이 되도록 치욕스러운 집안의 내력을 전혀 몰랐을 리가 없다. 할아버지가 역적으로 처형당하고 집안이 망할 때 김병연의 나이 다섯 살이었으니 어렵잖이나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했을 것이고, 그 뒤 이리저리 떠돌며 숨어살던 일이며, 아버지가 울화병으로 젊은 나이에 죽은 이유도 알고 남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병연이 자신의 할아버지를 ‘만 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매도했을 리도 만무하다.

여러 기록을 살펴보건대 김삿갓의 가출과 방랑은 빼어난 재주를 타고났건만 출신성분 때문에 구만리 같은 앞길이 막혀버린 좌절감과 울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인생과 장래를 두고 수년간 고민하던 김병연은 가출을 단행했다. 그것이 만아들 학균(鶴均)이 태어난 직후인 22세 때라고 전한다. 대삿갓 쓰고 대지팡이 짚고 미투리 신고 방랑길에 나선 김삿갓은 어제는 저 고을 오늘은 이 마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정해진 곳도 없으려니와 오라는 곳도 없이 떠난 유랑길, 구름 따라 물결 따라 발길 닿는 대로 떠도는 신세, 행장이라고 별 것도 없었다. 스스로 읊은 대로 ‘빈 배처럼 가쁜한’ 삿갓 쓰고 죽장 짚고 괴나리봇짐 하나 짊어진 것이 다였다.

본명은 김병연, 자는 성심(性沈), 호는 난고(蘭皋)였지만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는 누구에게도 이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삿갓 쓰고 다니는 이 기이한 방랑시인을 가리켜 김삿갓, 한문으로는 김립(金笠)·김사립(金莎笠)·김대립(金簾笠)이라고 불렀다. 김삿갓은 정 곤란한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이 김난(金鑾)이요, 자는 이명(而鳴)이라고 둘러댔는데 난은 방울 난, 이명은 그림으로써 울린다는 해학에 다름 아니었다. 또 호를 물으면 되는데로 아무렇게나 걸치고 다닌다고 해서 지상(芷裳)이라고 했으니 이는 궁궁이풀(구리때) 옷이라는 뜻이다.

빈털터리로 집을 떠난 김삿갓은 정해진 곳도, 오라는 곳도 없이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발길 닿는대로 나라 안을 떠돌아다녔다. 그런 신세를 읊은 대표적 작품인 〈대시(竹詩)〉를 소개한다.

-이대로 저대로 되어가는 대로
바람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밥이면 밥 죽이면 죽 생기는 이대로
웁으면 웁고 그르면 그르고 불이는 저대로
손님 접대는 가세대로
시정 매매는 세월대로
만사가 안 되네 내 마음대로
그렇고 그렇고 그런 세상 지나가는 대로 -

此竹彼竹化去竹
風打之竹浪打竹
飯飯粥粥生此竹
是是非非付彼竹
賓客接待家勢竹
市井買賣歲月竹
萬事不如吾心竹
然然然世過然竹

그렇게 주유천하하던 김삿갓은 2년 뒤에 잠깐 돌아와 후사 없이 일찍 죽은 형 병하에게 자신의 만이 학균을 양자로 입양시키고, 둘째아들 익균(翼均)이 태어나자 다시 방랑길에 나섰다. 바람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떠도는 인생, 세상잡사 초탈하여 풍류 한마당으로 천지간을 배회하니 신선이 따로 없었다. 그래서 김삿갓을 가리켜 뒷날 사람들이 한국의 시선(詩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선도 지상에 머무는 동안은 먹어야만 했으므로 때로는 마을에서 문전걸식도 했고 때로는 산사에서 공양 신세를 지기도 했다. 어쩌다가 운울깨나 아는 주인을 만나면 제법 그럴듯한 환대로 받았을 것이고, 또 기막히게 운수대통한 날이면 풍류를 알아주는 어여쁜 기생으로부터 아래위로(?) 극진한 사랑을 받기도 했을 것이다.

그동안 양자로 간 학균 대신 집안의 대를 이은 익균이 아비를 찾으려고 여러 차례 집을 나서 풍문이 들려오는 곳마다 쫓아다녔다. 간혹 바람결에 실려 묘향산에서 보았다는 소식도 있고, 영남 땅 어디선가 객사했다는 불길한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학균이 한 번은 경상도 안동에서, 한 번은 강원도 평강에서, 또 한 번은 전라도 여산에서 김삿갓을 찾아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으나 번번이 아들을 속이고 도망치는 바람에 놓치고, 결국은 전라도 화순군 동북면 구암리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시신을 모시고 돌아왔다.

철종 14년(1863년) 3월 29일 57세로 한 많고 파란 많은 이승살이의 막을 내린 김삿갓은 외롭고 괴로웠던 유랑의 발길을 멈춘 채 영원한 휴식에 들어갔다. 22세에 방랑길을 떠난 지 35년 만이었다. 왕조 말 어지러운 시대의 그늘에서 좌절과 실의를 딛고 죽을 때까지 외로운 발길을 멈추지 않았던 김삿갓의 방랑 또한 그 나름대로 깨달음에 이르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도행이나 마한가지였을 것이다.

-세상만사 이미 정해져 있거늘 /
뜬구름같이 덧없는 인생 공연히 서두르고만 있네. (萬事皆有定 浮生空自忙)- ㉞



고속도로에서 지켜야 할 것!



운전 중 DMB, 휴대전화 사용하지 마세요

돌발상황 발생시 평소보다 정지시간이 1.47초 늦어져 고속도로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 DMB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졸음운전하지 마세요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약 22%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것입니다.
휴게소와 졸음쉼터를 이용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과속운전하지 마세요

과속운전은 운전자의 시야를 좁히고 위기대응능력을 떨어뜨려 대형사고를 유발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속도를 조금 더 낮춰 주세요.



과적 및 적재불량하지 마세요

축하중 10톤의 과적차량 한 대는 승용차 7만대 만큼의 도로파손 피해를 초래하고, 적재불량으로 무심코 떨어뜨린 물건 하나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안전띠는 꼭 착용하세요

안전띠를 착용 했을 때 보다 사고 사망률이 3배 높아집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필수입니다.

고속도로가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른 길

- 스마트폰 교통방송 및 위치기반형 교통정보 앱 출시
- 무인요금소(8개) 도입 등 톨게이트 서비스 스마트화
- 차세대 첨단교통시스템 「스마트 하이웨이」 추진
- ※ 2012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 수상

안전한 길

- 첨단 고속도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 무인·무정차 논스톱 과적 단속시스템 구축
-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지속 확대(110개)
- ※ 교통문화 발전대회 대통령상 수상

쾌적한 길

- 저렴한 가격/좋은 품질 EX알뜰주유소 전국 확대(156개)
- 식약청 HACCP 인증으로 安心휴게소 구현
- 남해선 폐도에 친환경 태양광 발전소(4.6MW급) 운영
- ※ 공기업 최초 고객중심 경영(CCM) 인증 획득

빠른길 안전하고 쾌적하게

ex 한국도로공사

최덕모 원로회우 별세

최덕모 원로회우가 지난 1월 22일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고인은 1927년 전남 곡성에서 출생, 조선대 법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953년 평화신문 사회부기자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진출했다. 그후 동화통신 사회부기자,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취재 2부 차장, 부장, 한국일보 광고기획국 부국장, 건설공업 신문 부사장, 천재문화(주)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국문]

알기쉬운 건강상식

황사철 폐렴-천식조심

어느새 봄이 우리에게 한결을 더 다가와 있다.

이제 한 겨우내 움츠렸던 몸도 풀리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있지만, 노인들의 경우엔 면역력이 크게 떨어졌고, 계절이 바뀌는 요즘 같은 환절기엔 특히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

봄에는 공기 속의 미세먼지, 중국과 몽골로부터 날아오는 황사, 날리는 꽃가루, 또한 날씨가 건조해 기관지가 쉽게 마르고, 감기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좋은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독감에 걸리거나 알레르기, 천식이 있는 노인들은 그 증세가 악화되기 십상이다.

특히 봄철 황사가 오면 노인 호흡기 질환에 잘 대처해야 한다. 실제 황사가 왔을 때는 먼지량이 평소보다 약 4배 이상 되는데 이런 조건 속에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면역기능 약화와 함께 독감, 폐렴, 천식, 비염, 후두염 등과 같은 질환의 발생률이 매우 높아진다.

따라서 평소에 천식과 기침이 심하거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은 황사로 인한 비염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노인성 폐렴은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평소 식욕이 부진해지거나, 무력감, 기력쇠퇴, 가래 끓는 소리, 입술 손발의 청색증, 사지 한랭 등 일반적인 증상에도 폐렴을 의심해봐야 한다.

최근 보건 당국의 발표를 보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에 미세먼지나 중금속 외에도 인체에 유해한 세균도 함께 날아들어 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황사가 날아 올 때는 평상시보다 세균이 7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08년 5월~2010년 3월까지 서울 시내 세균 농도와 종류를 분석한 결과다.

그러므로 환절기 전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담배를 피우는 노인은 만성기관지염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므로 황사 때만이라도 금연을 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1년 중 알레르기는 3~4월에 많이 생기므로 알레르기에 예민한 사람들은 가정에선 되도록 창문을 닫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이보길

·본보 편집위원
·본회 건강포럼간사
·전 KBS해설위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에 접수된 알레르기 피해 사례 2,782건을 분석한 결과 3~4월의 피해가 전체의 28.1%(780건)로 가장 많았다. 꽃가루나 황사 등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래서 기온차가 심한 이때 노인들은 심폐기능에 무리가 가지 않게 걷기 등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황사가 심한 날은 되도록 외출을 삼가야하며 외출을 할 경우는 꼭 황사 마스크를 쓰고, 외출했다 귀가하면 깨끗하게 씻고 옷은 먼지를 털거나 세탁하도록 한다. 그리고 방안엔 가습기를 틀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호흡할 때는 되도록 입보다 코로 숨쉬도록 해야 한다.

‘먹기싫은 음식이 병을 고친다’란 책에 따르면 “황사 이기는 음식을 먹자”며 다음과 같은 음식들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미나리인데 미나리는 호흡기 건강에 좋은 대표 식품으로 3~5월이 제철이다. 다음 냉이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 인, 철분, 비타민A와 비타민C가 풍부하다.

사과는 폐 건강을 돕는데 좋다. 다음은 대추인데 알레르기에 좋아 봄철에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그냥 먹거나 약식에 넣어 먹거나 차로 달여 먹는 것도 좋다. 물을 많이 먹는 것이 기관지 건강에 좋다.

그러나 황사철엔 가급적 커피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끝으로 삼겹살인데 돼지고기에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폐에 쌓이는 공해물질을 중화하는 기능이 있다. 광산에선 광부들을 위해 돼지고기를 매일 식단에 올리고 있다. 예전엔 신문사에서든 인쇄일하는 공무원 직원들을 위해 돼지고기를 많이 먹도록 했었다.

그리고 안경을 쓸 경우 안경렌즈 표면에 꽃가루나 황사먼지 등 미세먼지가 묻었을 때에는 렌즈 전용 클리너로 표면을 부드럽게 닦아 내도록 한다. 모래알갱이 등 딱딱한 이물질이 묻은 채 안경렌즈를 닦으면 렌즈 표면에 흠집이 생기거나 자칫 코팅이 벗겨질 수 있다.

만물이 살아나고,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봄- 아름다운 노년에 봄을 흠뻑 만끽할 수 있도록 평소 건강에 더 관심을 갖자. [국문]

허경구 원로회우 별세

허경구 원로회우가 지난 3월 6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81세,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했다.

고인은 1932년 9월 24일 경남 마산에서 출생, 부산대 법과대를 졸업 후 1956년 국제신문 편집부기자로 언론계에 진출했다. 다시 부산일보 편집부로 자리를 옮겼다가 1965년 5월 신아일보 창간사원으로 편집부차장직을 맡았다. 그후 1968년 경향신문으로 옮겨서는 편집부



차장, 부장을 역임했고 한국언론연구원 전문위원, 월간 모터매거진 고문직도 맡는 등 평생을 언론 외길을 걸어온 원로언론인이다. 슬하의 2남 중 차남은 현재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대한언론인회는 3월 8일 오후 4시 대한언론인회 후원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고인이 몸담았던 경향신문 동료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언론인장으로 추도식을 거행했다. [국문]

弔辭 신문편집의 큰 별 지다

故 허경구선배 영전에 — 이대영 (본회회우·전 국민일보 편집국장 대우)

허경구 선배님은 시인이었고 훌륭한 가수이기도 했습니다. 해박한 법률지식과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지녔으며 너그러운 상담자이자 해결사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능한 편집기자로 많은 선배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선배님은 시를 쓴 적도, 화려한 무대 위에서 노래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나 사법시험에 응시한 일도 없었고 법률과 관련한 어떠한 업무에도 종사한 이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애송시를 항상 가슴 가득히 품고 계셨습니다. 청아한 목소리로 뽑아내던 노래, 그 절창(絶唱)들은 회식자리에서 좌중의 흥을 돋우는 백미였습니다.

선배님은 편집기자들의 대부였습니다. 또한 엄격하고 자상한 어른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그냥 휴지로 사라져버릴 신문지면임에도 후배들이 레이어아웃과 제목을 다듬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게을리 한 흔적이 보이면 가차없이 불벼락을 내렸습니다. 하루 전에 제작하는 석간신문의 문화면 등 간지(間紙)는 거의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놓아야 했습니다. 미흡하다싶으면 몇 번이라도 지면을 다시 만들어야했고 자칫 야근까지도 해야 했습니다. “대충대충...적당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집기자는 그렇다 쳐도 당시 활자로 작업을 하던 정판직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선배님은 이런 사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퇴근길에는 전날 수고했던 정판직원도 참석시킨 가운데 저녁을 함께 하면서 상냥한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배님은 후배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박봉을 터는 일이 잦았습니다. 모두가 곤궁했던 시절, 가끔 회식자리를 마련하고 부원들의 단합을 도모한 것입니다. 자신은 술이 약해 여러 차례 곤혹스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메이커를 자임했던 것입니다. 언론계의 동료로서 부부의 연을 맺으신 부인께서는 어려운 가정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남편을 언제나 이해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후배로서 정말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선배님은 동료나 선·후배를 막론하고 직장이나 가정사로 인해 곤경에 처



조사를 읽는 이대영 회우.

했을 경우 언제나 자신의 일처럼 발 벗고 나섰습니다. 금전적 도움은 물론 일자리를 주선하기도 하고 그들의 자녀까지 챙기면서 동분서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정이 차고 넘쳤던 해결사였습니다.

선배님은 유년기에 앓았던 질환의 후유증으로 생긴 ‘장애’를 운명처럼 등에 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이지 않은 편견과 차별의 아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보다 작은 체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당당했습니다. 생색도 안 나고 화려한 명성과도 거리가 먼 내근 부서를 맡고 있었지만 부당한 간섭에는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편집기자의 레전드’로 추앙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배님은 신군부시절 터무니없는 이유로 수많은 동료 기자들과 함께 해직을 당하는 수난을 겪었고 이로 인해 사실상 언론사를 등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60년대 말~80년 초까지 십 수년 간 몸담았던 경향신문을 떠나 해직기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쓸쓸한 방황의 세월을 보내야했습니다. 그 때도 선배님은 의연했습니다. 주변의 ‘외면’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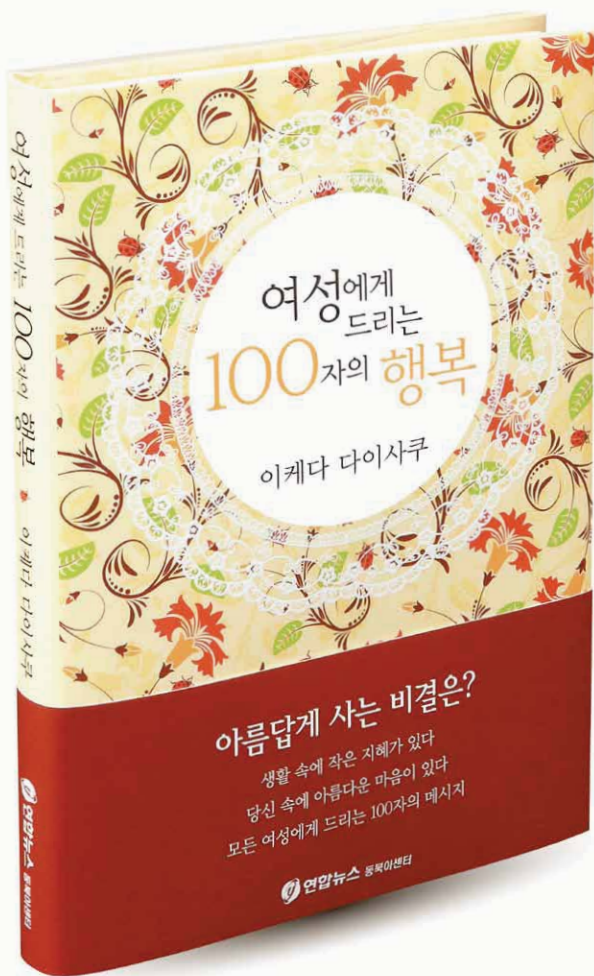
그 선배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9년 전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부인과의 애뜻한 재회를 위해 우리들과 아쉬운 작별을 고하신 것입니다. 몇몇 후배들이 퇴직 이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선배님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지난 1월말 모임에서 “다음 달에는 자네들을 못 볼 것 같다”며 처연하게 웃으시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월말 경에는 병원으로 문병을 갔다가 필담(筆談)조차 못한채 병실을 나서신 후배들에게 애써 손을 흔들어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선배님. 자신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겼던 열정, 이제는 모두 내려놓으시고 아무런 아픔도 고난도 없는 천국에서 편히 쉬소서. [국문]

여성에게 드리는 100자의 행복

전국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선정

아름답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일상에서 전혀 올린 반짝반짝 빛나는 삶의 지혜
모든 여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특별한 메시지



“여성의 아름다움이란
외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히 살아가는 삶,
자기만의 목표를 찾아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삶이야말로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아름다움이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멋진 연애와 사랑을 꿈꾼다면,
올곧게 살아가고 싶다면,
진정한 자신을 찾아내 부지런히 연마해야 한다.”

이케다 다이사쿠 지음 / 값 10,000원 / 184쪽

추천사

“자신에게 당당하면서 자녀에게는 멘토로서, 남편에게는 꿈을 만들어 가는 파트너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은 워킹맘들에게 추천한다.”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장

“여성뿐만 아니라 현대의 모든 ‘시시포스’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인생이라는 바위를 밀어 올리다 만나는 시원한 바람을 이 책에서 느끼기 바란다.”

고민정 KBS 아나운서

“때로는 많은 내용을 가르치기보다 적절한 빠기가 더 중요하다. 이 책에는 잡다한 지식도, 어려운 용어도 없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깔끔하게 들려준다.”

‘뽀로로 아빠’ 김일호 오콘 대표

회우동정 가나다순

은탑산업훈장 수훈



김인규(전 KBS 사장)회우= 지난 2월 6일 지상과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방송콘텐츠 산업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춘천교육대총장에게 감사패 증정



박기병(대한언론인회 6·25 참전언론인회 회장·전 강원민방 사장)이사= 지난 3월 4일 춘천교육대학교 김선배총장에게 춘천사범 8회 졸업생 일동을 대표해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 감사패는 김총장이 학도병으로 참전한 6·25 참전동문들의 동판 명패를 학교 현관에 부착, 6·25 참전동문의 애국심을 선양하는 등 동문의 명예를 크게 드높인 공로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



이경재(전 동아일보 논설위원)회우= 인천 계양에서 15, 16, 17, 18대 4선국회의원을 지낸 이경재 회우가 박근혜정부 초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됐다. 이회우는 동아일보 정치부장과 논설위원 등을 거쳐 김영삼 정부 때는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 공보처 차관을 지냈다.

대마도서 언론포럼 세미나



최귀조(지구촌언론포럼 회장)이사= 오는 5월 15~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대마도에서 언론포럼 창립 1주년기념 세미나(주제: '한일우호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를 개최한다. (연락처 전화 701-9740)

본회 제135차 이사회 개최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3월 19일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제135차 이사회를 열고 금년도 입회 원서를 낸 신입회우 4명(자격심사위원 통과)의 입회를 승인하고 금년도 사업계획 전반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사진)



이날 이사회는 특별히 금년도 사업으로 이미 예산을 확보한 '실록언론 언론인의 길 못다한 이야기 3집' 편찬과 6·25 참전언론인들이 엮는 '우리

는 이렇게 나라를 지켰다' 출판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본회 차원에서 이를 적극 후원하기로 했다.

본회 고문·회장단 간담회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3월 15일 12시 프레스클럽 엠바고 룸에서 금년도 첫 고문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비롯, 본회 활성화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사진)



홍원기 회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복 신우식 제재형 고문, 조창화 명예회장 등 고문단 전원이 참석했다. 이해복고문은 이 자리에서 "대한언론인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회원 복지증진 사업을 비롯한 제반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격려사를 했다. 한편

제재형 회장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대한언론인회도 이제는 팔순 잔치나 구순잔치를 고려해 볼때"이며 '다자녀 시대의 추세에 맞는 경조비 지원책'(현재는 두 자녀에 한함) 등을 건의 했다.

회우경조사

부음

박기정 회우 모친상= 3월 2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3월26일 오전 11시
송선무 회우 부인상= 3월 23일 분당 재생병원 장례식장, 발인 3월 25일 오전

저서 보내주신 분

윤재홍 회우= 'TV뉴스, 취재에서 보도까지' (2006년·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사)
'방송기자로 성공하는길' (2008년·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사) '아프리카 추장이 되었다' (2011년·기린원 출판사)
진철수 회우= '코리아 라이징' 차세대 지도자에게 권하는 '미래구상' 두 가지 (2013년·파랑새 미디어)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김우상(金羽相)



1946년 4월 6일생
서울양천구 목1동 961 하이페리온 201-2004 (우158-724)
전화 2636-3799 010-9269-3799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수료(94) KBS대구방송입사(90) KBS포항방송국보도담당부장(89-92) KBS심의실 보도심의차장(92-94) KBS 사회교육방송 보도시사부장(94-99) KBS 사회교육방송 보도편집위원(2003-2005)

박동선(朴東善)



1942년 12월 31일생
경남 사천시 축동면 탑리 754-3 사천문화원 원장(우664-811) 전화 055-854-8080 010-3839-800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2012) KBS사회교육방송국 보도부기자 부장(79-97) KBS진주방송국장(97)

손위수(孫渭壽)



1945년 7월 24일생
서울 마포구 상암동 1736 상암 월드컵아파트 1016동 1201호 전화 373-9778 010-5259-9778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70) 한국일보사 사회부 외신부 기자(70-80) 문화공보부 주 태국대사관 공보관(80) 국회의장 수석공보비서관(86) 주독일대사관 공사겸 문화원장(93) 미국대사관 공보공사(1급·97))

엄병윤(嚴秉潤)



1941년 2월 8일생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85-696 갤러리아 프래아파트 102동 1902호 전화 7878-1004 010-5232-2339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한국일보 대한일보기자 한국방송공사 서울경제신문사기자 편집국 취재2부(산업부)기자 15년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가나다순·괄호안 납입연도)

권혁만(13)	이현구(13)
김한구(13)	임현태(13)
박동선(신입회비 및 연회비 13)	정서구(13)
윤주영(13,14)	조남조(12)
이연상(12,13)	최경호(08)

2007년 이후 '대한언론' 제책 보관

대한언론인회는 2007년 이후 발행한 회보 '대한언론'을 3년치씩 묶어 제책 보관하고 있다. 2007년 이전분은 축쇄

판으로 발간한바 있다. 열람을 원하는 회우는 본회 자료실에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광고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한국에는 한국경제신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을 보고 판단합니다

일본의 샐러리맨들은
일본경제신문에서 지혜를 찾습니다

유럽의 지식인들은
파이낸셜타임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HOW TO LIVE
SMART

당신의 말을 이해하다

David Copperfield
삼성전자 스마트TV모델
데이비드 카퍼필드

당신의 손짓에 반응하다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인 당신에게는 현실적인
TV의 기적이 시작된다

55형 ES8000

The Future of Smart TV, Now
Samsung **SMART** TV 삼성스마트TV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마술보다 더 마술같은 TV의 기적

스마트 인터랙션
당신의 음성, 행동, 얼굴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기적

스마트 콘텐츠
가족과 함께 클라우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적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2013년부터 판매예정)
애플리케이션 키트만 꽂으면
새로운 TV가 되는 기적

삼성전자

SAMSUNG